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學父母의 學校經營 參與 認識 研究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2005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行 政 專 攻

趙 鍾 仁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璟 培

學父母의 學校經營 參與 認識 研究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教 育 行 政 專 攻

趙 鍾 仁

趙鍾仁의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및 問題	2
3. 研究의 內容	3
4.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學校經營의 意義	4
1) 학교경영의 정의	4
2) 학교경영의 원리	6
3) 학교경영의 영역	9
2. 教育自治와 學父母의 教育權	11
1) 교육자치의 정의	11
2)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4
3) 학교경영의 자율화	15
4) 학부모의 교육권	18
3. 學父母의 學校經營 參與	19
1)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목적과 필요성	19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영역	22
3)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효과	24
4. 우리나라 學父母의 學校經營 參與形態 變遷	26
5. 外國의 學父母 學校經營 參與 實態	30
6. 先行 研究의 考察	40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43
1. 研究의 對象	43
2. 研究의 道具 및 內容	45
3. 資料의 處理	45
IV. 結果 分析 및 해석	46
V. 要約, 結論 및 提言	86
1. 要約	86
2. 結論	90
3. 提言	92
參考文獻	93
附錄	97
ABSTRACT	110

表 目 次

<표 1>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율	45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46
<표 3> 설문지의 내용	47
<표 4> 교육자치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정도	48
<표 5> 전국 및 지자체 단위 교육정책 수립 학부모 참여정도 인식	50
<표 6> 현 교육자치제하에서 자녀교육 불만사항	52
<표 7>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도 인식	54
<표 8> 자녀 재학학교 학교경영 현황 인식	56
<표 9> 학교경영 안내 실태 인식 여부	58
<표 10>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필요성 인식 ...	60
<표 11>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이유	62
<표 12>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불필요 이유	64
<표 13> 자녀 재학 학교 학부모 학교경영참여 인식 정도	65
<표 14> 학운위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도	67
<표 15> 학운위 산하단체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도	69

<표 16>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이유	70
<표 17>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	71
<표 18> 자녀 재학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경험	73
<표 19> 학부모의 자녀 재학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영역	75
<표 20> 학교경영 전반적 정보 공개 필요성 인식정도	77
<표 21> 교육과정·교육계획 수립과정 학부모 참여 필요성 인식 정도 ...	79
<표 22> 인사영역 학부모 참여 필요 인식도	80
<표 23> 학교운영위원회제도 개선 필요 인식도	82
<표 24>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우선 개선 사항	84
<표 25> 학교경영 확대 위한 학교경영 선결 조건	86
<표 26> 학교경영 활동 참여 선호 영역	88
<표 27> 학부모 개인적으로 학교경영 참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89
<표 28> 학교경영 참여 요구받을 경우 반응	91

I. 緒 論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학부모는 과거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학부모 의식, 학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학부모의 자녀 교육환경 및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임하는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에서 기인하는 사교육비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양육의 시발점과 종착점은 모두 교육이란 것으로 귀결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매우 높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층인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교사 중심의 수업 관행을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데 교육활동의 초점을 둬으로써, 학생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자아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교육과 인성교육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공교육의 위기상황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학교 밖의 사설학원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이 점점 기능이 강화되고 학교교육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학교가 가진 본래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상호보완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제반 교육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학교교육의 구성원인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점점 그 영역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가 교육에 대

하여 행사해 왔던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가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정당화 되고 있다. 학부모의 권리 증대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의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학교 내외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일부분의 적극적인 참여자도 과연 제대로 인식된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학교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가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다양성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보완,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에 참여욕구와 실태에 따른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여 학부모의 학교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실태와 함께 바람직한 학교경영 참여 방안을 탐구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경영 참여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경영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식은 학부모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내용

첫째,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고찰한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경영의 참여 인식과 실태에 대하여 학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소재 일부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만 시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학교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인식 전반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셋째, 설문지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닌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와 참고 문헌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경영의 의의

1) 학교경영의 정의

인간은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때 조직원은 조직을 유지·발전시키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경영 또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 또는 운영이라는 개념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Hersy와 Blanchard¹⁾는 경영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 더불어 또 집단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의 개념을 학교라는 조직의 경영으로 한정하면 학교경영(school management)이 될 수 있다. 학교경영에 관한 개념은 학교교육과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교육행정학자들 간에 교육경영에 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약간씩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경영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oyle²⁾은 학교경영이란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조직의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윤태³⁾는 학교경영이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장과 교직원 집단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조직적 활동이며 총괄적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1) Paul Hersy and E.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Utilizing Human Resource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 p. 5. : 김정한 외,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서울 : 형설출판사, 2004), p. 315.에서 재인용.

2) Eric Hoyle, “The Process of Management”(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1), p. 8.

3) 김윤태, “교육행정 교육신론”(서울 : 백영사, 1994), p. 424.

임규진과 임연규⁴⁾는 ‘학교경영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 또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였고, 정태범⁵⁾은 학교경영이란 학교가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백분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다.

최희선⁶⁾은 학교경영에 관한 대표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학교경영을 일반행정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학교 경영의 정의는 흔히 법규 해석적 또는 공권적 해석의 정의를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경영의 정의를 ‘교육에 관한 경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 집권적·관료 통제적인 국가체제하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에 관한 경영’이란 정의는 학교경영이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행정작용에 있어 권력적, 강제적 요소를 강조하며, 일반 행정에 매몰되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학교경영은 교육의 중심적 기능인 교수와 학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 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백현기⁷⁾는 ‘수업은 학교의 최고의 목적이며 조직과 경영은 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수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곧 학교경영이다’라고 하였으며, Reeder⁸⁾도 학교경영은 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교수와 학습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즉, ‘학교 경영은 언제나 교수와 학습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Campbell⁹⁾도 어떤 조직에서든

4) 임규진·임연규, “교육행정학의 이해”(서울 : 도서출판 보성, 2003), p. 365.

5) 정태범, “학교경영론”(서울 : 교육과학사, 2000), p. 12.

6) 최희선, “학교학급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p. 10-12.

7) 백현기, “교육행정의 기초”(서울 : 박영사, 1977), p. 15.

8) Ward G. Reeder, “The Fundamentals of School Administration”(New York : Macmillan, 1941), pp. 6-7.

지 경영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의 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학교 조직에 있어서의 목표는 교수와 학습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주체가 아닌 교육의 수단으로서 교육을 위한 보조적인 봉사활동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협동적 행동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학교경영을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집단적인 협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협동 행위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을 두 사람이 굴리는 행위와 유사하며, 합리성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목적을 성취함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⁰⁾. 학교경영이란 결국 학교라는 조직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성원을 육성해 내느냐 하는 과제와 관계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제 정의를 종합해 보면, 학교경영이란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및 기술, 정보를 확보하여 그것을 계획, 결정, 집행, 지도, 통제, 평가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학교경영의 원리

학교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원리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리는 상당한 경험적 근거를 가진 보편타당한 진술로써 적용해야 할 합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경영의 원리란 문화유산과 공중의 공통된 기대에서 이끌어 낸 제 가치의 체계로서 학교 경영에 적용해야 할 당위의 기준을 의미한다. 김창걸¹¹⁾은 학교 경영의 원리로서 민주화의 원리, 합리화의 원리,

⁹⁾ R. F. Campbell, J. E. Corvally, and J. A. Ramseyer, "Introduc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oston : Allyn & Bacon, 1966), p.83.

¹⁰⁾ D. Waldo, "What is Public Administrations", M. Jay et al., ed.,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s(Illinois : Moore Publishing Company, Inc., 1978), p. 170.

과학화의 원리, 조직화의 원리, 효율화의 원리, 지역화의 원리를 들었으며, 서정화¹²⁾는 합목적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민주적 운영의 원리, 능률성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를 들었다. 김영돈¹³⁾은 학교 경영의 원리를 법규 면에서 본 기본원리, 운영 면에서 본 기본원리 그리고 학교 경영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리로 대별하고, 학교경영 민주화를 위한 원리로 민주화의 원리, 과학성의 원리, 사회성의 원리 또는 지역성의 원리를 들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학교경영의 원리로 합목적성(타당성), 합법성, 민주성, 자율성, 능률성, 과학성, 지역성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박인학¹⁴⁾은 학교 경영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합목적성의 원리는 어떠한 기관에서 바람직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영 활동은 타당한 것, 즉 올바른 보조 활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바람직한 학교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경영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경영은 학교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비해 주는 봉사활동이며 수단이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과 교육 내용과 교사가 만나는 교수-학습의 장을 잘 지원하고 유도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합목적성의 원리를 타당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학교교육 목표에 맞고 목표에 비추어 타당한 경영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는 학교 경영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경영은 헌법 제 31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는 교육관계 법률과 명령, 조례, 규칙 등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부당한 직무 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민주성의 원리는 학교교육의 목표 설정과 경영 계획 수립, 실천, 평가 등

11) 김창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91), p. 345.

12) 서정화, “김세기·김용숙, 학교경영”(서울 : 감을출판사, 1988), pp. 16-20

13) 김영돈,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서울 : 익문사, 1971), pp. 51-56.

14) 박인학, “교육행정과 교육조직 경영의 이론과 실제”(서울 : 도서출판 양지, 2002), pp.335-337.

학교 경영의 제반 과정과 영역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광범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한 의사를 반영하게 하며, 특히 실천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이양을 통하여 독단과 전횡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경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장에게 있지만, 교장 한 사람의 지시나 명령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원회를 비롯한 각 종 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 계획하고 실천, 평가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에 의거하는 것이다.

넷째, 자율성의 원리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이란 단위 교육기관인 학교 조직체가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상부나 외부 조직의 지시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자율성은 개인적 자유와 기관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더 좁은 뜻으로는 기관의 자율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란 진리 탐구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발표의 자유, 학습의 자유 등을 의미하며, 기관의 자율성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며, 학교 발전의 제반 정책 결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학교조직이 전문적 조직이며 이완결합 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경영의 자율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섯째, 능률성의 원리는 학교교육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와 노력을 통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곧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정보 등을 투입하여 교육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단기적 평가를 불허하며 단기적 유형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무형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 학교 경영에 있어서 능률성의 원리를 주장할 때는 단기적 평가보다 장기적 평가에 의한 능률을, 단순한 경제적 능률보다는 구성원의 만족 내지 욕구 충족을 높이는 사회적 능률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능률성의 원리는 민주성의 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강조될 수 없는 것이며 양자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과학성의 원리는 학교경영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실현되며, 과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학교교육현장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기초로 학교 경영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며, 그 결과가 피드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체제 접근 방법을 통하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조직의 과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목표 관리 등 다양한 경영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성의 원리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생활화, 학교의 사회화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성의 원리는 사회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사회인사와의 유대 강화, 교육 자원의 획득, 사회 개선에의 봉사 등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학교경영을 통한 교육력의 제고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목표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학교경영의 각 영역에 합목적성(타당성), 합법성, 민주성, 자율성, 능률성, 과학성, 지역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학교 경영의 영역

학교 경영 영역이란 용어는 학교 경영의 과업 또는 활동 내용, 대상, 범위, 한계 등을 포함한다. 학교 경영이 교수·학습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과업이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은 상호간에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지만, 경영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나 권한 및 업무의 분담을 위해서나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 활동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

15) 박인학, 전개서(2002), p. 357.

학교의 업무 영역은 학교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Lipham과 Hoeh¹⁶⁾는 학교 경영 영역으로 교수 프로그램, 교직원 인사, 학생 인사, 재정 및 물적 지원, 학교-지역사회 관계 등을 들고 있다.

Campbell¹⁷⁾은 행정을 과업중심으로 대하는 접근 방법이 이론적으로 크게 발전되지 못하여 질서 있는 분류의 정도라고 말하고, 행정적 과업 또는 행정의 운영 영역을 학교-지역사회 관계,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 인사, 교직원 인사, 시설, 재정 및 사무관리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남정걸¹⁸⁾은 학교경영의 영역을 교육목표·내용·교수-학습과정·평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장학, 교직원과 학생의 인사관리, 물적 시설과 설비 및 환경의 관리, 재정의 운용, 학교의 대외관계로 구분하였다. 김봉수¹⁹⁾는 학교 조직편성과 관리영역, 인사관리, 학교재정 회계관리, 학교 사무처리 영역, 지역사회, 학교평가, 학교 건강관리로, 강길수²⁰⁾는 학교 행정의 과업을 영역중심의 접근에 따라 장학의 일, 학교 경영 조직과 운영, 인사의 관리, 시설의 관리, 재정의 일, 사무의 관리, 지역사회 관계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문낙진²¹⁾은 전반적 계획, 장학, 교직원 조직 및 인사관리, 학생관리, 시설행정, 사무행정, 재정관리, 학력 평가 및 체제 평가, 교육청 및 지역사회 관계를 학교 경영의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경영의 영역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학교경영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학생을 직접 교수하는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학자들이 분류한 학교 경영의 내용별 영역을 거의 비슷한데 이를 종합하면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 학생관리, 교직원 인사, 시설·재

16) J. M. Lipham and J. A. Hoeh Jr., "The Principalship"(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4), p. 10.

17) R. F. Campbell, J. E. Corvally and J. A. Ramseyer, "Introduction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68), p. 96.

18)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교육과학사, 2005), p. 407.

19) 김봉수, "학교와 학급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82), p. 104.

20) 강길수, 김중철, 김영식, "학교행정"(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73), p. 99.

21) 문낙진, "교장의 직무분류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논문집, 1979), p. 199.

정관리, 사무관리, 대외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학교 경영의 영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 영역, 둘째, 건강 및 안전 관리 영역, 셋째, 교육환경 및 학교 시설 영역, 넷째, 학교 행·재정 영역, 다섯째, 대외 관계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2. 교육자치와 학부모의 교육권

우리 헌법은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립을 최고 이념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동일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곳에 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도와 지방적 자율, 전국적 통합과 지방적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양자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국가의 일방적 지도와 통제 및 획일화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고, 이러한 범주 안에서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과 학교경영에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 학교교육에 대한 자율화·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현재, 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조화와 더불어 학교경영에 대한 학교구성원, 특히 학부모들의 의사 반영 및 자율적·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교육자치의 정의

미래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²²⁾.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육자치이다.

교육행정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교육정책상의 교육자치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 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교육자치 역시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²⁴⁾. 따라서 구성된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

22)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1995), pp. 4-5.

23) 서정화, "교육행정제도 개선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0), pp. 74-75.

24)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서울: 박영사, 1983), pp. 27-28.

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의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²⁵⁾.

한편 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정책에만 국한된 협의의 개념인가 아니면 중앙교육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가 하는 점이 논의될 수 있다²⁶⁾.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 항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권화가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결국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과 자주성 보장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조장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²⁸⁾.

25)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 : 양서원, 1996), p. 27.

26)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3(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6), p. 7.

27)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연구회 제3권 제3호(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p. 29.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 자율성 보장은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제도와 운영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교육자치제의 개념 내지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남정걸²⁹⁾은 교육자치제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로서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 김종철³⁰⁾ 등은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을 교육자치제의 원리로 들고 있다. 또한 김영식·최희선³¹⁾ 등은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 제시된 교육자치제 제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정리하여 보면, 동법 총칙 제1장은 이 법의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이 발휘되어 운영될 때 발전할 수 있다.

28) 조성일·안세근, 전게서, p. 28.

29) 남정걸, 전게서(2005), pp. 133-134.

30) 김종철·이중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p. 209-210.

31)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서울 : 성원사, 1998), pp. 326-330.

남궁용권³²⁾은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의 수립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에 의한 통제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의정치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분리·독립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분리·독립의 원리는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중립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넷째,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 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같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정찬영³³⁾ 등은 교육행정이 설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 내지 원리로 자율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안정성의 원리 등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교육의 자주성, 민주성, 분권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에서보다는 일선 단위학교에서 그 본질이 추구되고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제의 기본 정신이 학교 단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에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동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단위학교 교육자치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3) 학교경영의 자율화

교육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래의 본질과 목적을 위해 교육활동에 자

32) 남궁용권, 신교육학총론(서울 : 양서원, 1995), pp. 431-433.

33) 정찬영, 교육행정의 자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6), p. 45.

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김종철³⁴⁾은 자율이라는 개념의 3가지 하위요소로서 자기결정 내지 자주적 자기 책임, 자기 통제, 자기 규율을 제시하며, 자율의 본질적 요소는 자주적 선택과 결정이며, 자주적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한 자기 책임을 위해서는 자기 통제와 자기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찬영³⁵⁾은 자율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 즉,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되,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범³⁶⁾은 학교경영의 자율화는 단위 교육기관인 학교 조직체가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상부나 외부조직의 지시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경영의 자율화란 단위 학교가 외부의 지시나 개입 없이 그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 스스로 집행·통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율성의 필요에 대해 김신복³⁷⁾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자율적인 학습 풍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교육 기능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교육은 학교교육 기능 자체가 전문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창의성 발휘는 물론 전문직의 발전이나 그 기능 수행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기회 균등 교육은 학교교육이 타율에 의해 획일화 되고 규격화된다면 학생의 잠재 능력은 전체 속에 매몰되어 교육 본래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정일은 학교 단위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4) 김종철, 교육에서의 자율과 교권 (서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학과, 1989), p. 3.

35) 정찬영 외 2인, 교육행정의 자율화 방안 (서울 : 교육개발원, 1986), p. 13.

36) 정태범, 학교·학급경영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1995), pp. 12-13.

37) 김신복, 자율권을 저해하는 요인들, 「새교육」 통권497호 (서울 : 한국교육신문사, 1995), p. 25.

첫째,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과도한 지시와 명령이 계속되고 있어 각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및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지시와 기준 적용으로 단위학교 경영의 획일화가 초래되고 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이 관리 업무 위주로 학교현장에 장학, 연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활동의 지원·조장 행정이 지시, 감독 위주의 비전문적 교육행정방식으로 되어 전문적 공동체 의식 형성과 학교 구성원의 창의적 노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단위 학교에서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등의 학교 경영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학교경영에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교육행정이 상부의 지시·감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고 학교 경영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김세기³⁸⁾는 학교경영자의 잘못된 경영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교의 독자성을 학교 스스로가 경시하여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다. 둘째, 학교경영이 관리적 기능을 주로 하여 수행하고 있다. 셋째, 학교경영이 교장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학교 단위의 자율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질적인 학교단위의 자율경영제, 정착, 학교단위의 운영 재량권 확대, 학교경영의 공개 및 참여 기회 확대,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능력 배양, 학교경영에 대한 평가체제 확립, 학교 단위의 자율경영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들고 있다³⁹⁾.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의 지시·통제를 지양하고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교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8) 김세기, 학교경영론 (서울, 백영사, 1990), p. 26.

3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현안 10대 과제 (서울 :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1995), p. 51.

4)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에 관한 기본인권은 인간적인 성장발달권으로서의 학습권을 핵심으로 한다. 학습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하여 갈 권리이자 문화적인 생존의 권리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과 더불어 기존 국가의 교육권이 강조되던 풍토에서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더욱 존중될 것이다. 다변화된 사회 구조의 특성상 교육에 대한 부모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육권을 독점하고, 획일적인 정책 수립과 그 집행만을 강요한다면 학부모의 저항과 대안 제시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그 이유는 국가 주도의 제도권 교육은 부모와 학생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부모 교육권은 그 성질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적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사회국가원리를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권의 범주에 머물러있던 학부모 교육권에 사회권이 갖는 적극적인 성격을 부여한 것은 어린이의 학습권 보장에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 집단에 의한 학교교육 참여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시행하여 학교 내 중요교육사항이나 학교행사 등 교육문제에 관하여 학부모가 참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⁴⁰⁾.

이와 같이 학부모 교육권에 있어서 학습권성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학부모 교육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자유권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권으로서의 학부모 교육권은 자유라고 하는 더욱 큰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권은 사회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40)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홍보자료집(1) (1995), p. 7.

31조(교육을 받은 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인 제22조(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권은 “성장·발달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따라서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도와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주체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학부모 교육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에 위배된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학부모 교육권의 한계로서도 작용한다고 하겠다.

3.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오늘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참여의 확대는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⁴¹⁾. 이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조직원의 직무수행의 욕과 만족감을 높여주며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는 조직 구성원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과의 일체감을 증대시키며 개인을 과업과 관련하여 사명감·책임감을 더 쉽게 느끼도록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경영에 학교 조직의 구성원인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학교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 교육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학부모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41) 우중해, 현대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82), p. 178.

학교경영 참여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교육적·법규적인 당위성과 사회적·시대적 요청이 강조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에 대해 임경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²⁾.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도 가져오지만 인력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받는 학교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한다. 학부모 자신의 자녀에 한정된 교육관을 사회적으로 넓히며, 지역 사회 교육에 공헌한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순형⁴³⁾은 학부모 참여를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 평가 등 주요 단계에 부모가 개인하는 것,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용하고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어린이 성장의 주요 터전인 가정과 학교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으로 만들어 학습에서의 성공을 증대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자현⁴⁴⁾은 학부모가 학교교육 내용의 운영과 방법 및 행·정적 형역에 참여·지원하고 의사소통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권미경⁴⁵⁾은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생활 및 제반 학습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와 함께 벌이는 학생의 교육효과를 신장하고자 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는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를 학교경영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학교 조직의 목표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부모는 학교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이다.

42) 임경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부산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 11-12.

43)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0권 2호, 1992), P. 245.

44)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 5.

45) 권미경, 학부모 운동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 5.

이순형⁴⁶⁾은 ‘학교의 공공적 성격은 정책 및 계획의 수립, 프로그램, 성과 등의 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그들의 필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관심과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원래의 학교의 책무는 주민의 교육권을 수임한 데서 주어진 것이므로 책무성 모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주민들에게도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목표 설정을 비롯한 교수-학습과정의 운영, 학습 환경의 유지 및 재정 확보와 관련한 제반의 교육의 과정에서 그들과 책임을 공유하고 이에 참여해야 함은 당연히 요청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가 어떻게 이러한 요구와 참여를 수용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란 이와 같이 학교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떻게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고,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구성원인 학부모와 학교경영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원천으로 학교의 재정의 추가적 부담, 각종 교육 보조 활동, 현장 견학의 조력자, 특기·적성교육 및 학교수업의 보조자 등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Cunningham⁴⁷⁾은 학교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 일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학교의 당면과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려는 학교의 노력에 더욱 협조해 줄 것이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이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능력을 학교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를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평가

46) 이순형, 학교 경영과 지역사회관계, 교육자치제에 대비한 학교 경영의 방향(교육행정학 연구회 '89 연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1989), pp. 55-58.

47) 김종철, 학교학급경영론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p. 123.

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는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도모(목표 공유 증대, 동기 유발, 의사소통 개선, 집단 과정 기술 발전), 결정 결과에 대한 이해와 수용(변화에 대한 저항 감소), 책임의 수용과 협동 작업의 촉진, 학교구성원의 만족과 학교풍토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영역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에 협조자 또는 동반자로서 유대감을 갖고 효율적인 학생들의 발달 및 학업성취를 위해 협조·지원·자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Beare⁴⁸⁾은 학부모 참여의 '참여'의 의미를 영어의 'involvement'와 'participation'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nvolvement의 어원은 라틴어 'involvere'로서 '말다(to roll into)', '싸다(envelop)', '감싸다(wrap up)'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의사 결정의 의미보다는 손님으로서의 초청에 의한 참여로 볼 수 있으며, participation은 당당한 권리를 갖고 참가(take part in)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Henderson, Marburger 그리고 Ooms⁴⁹⁾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첫째, 아동의 교육과 사회발달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 둘째, 학교의 노력과 사회 문제를 돕는 협동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 셋째, 학교의 행사

48) H. M. Beare and W. I. Boyd, "Restructuring School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Movement to Transform the Control and Performance of Schools(London : the Falmer Press), p. 207. ; 임연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논리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0권 제 2호(2002), p. 152에서 재인용.

49) A. T. Henderson, C. L. Marburger and T. L. Ooms, Beyond the Bake Sale : An Educator's Guide to Working with Parents(Columbia : the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in Education, 1986), pp. 2-15. ;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통권 제30호 제2권 (1992), p. 253에서 재인용.

에 참관하고 감사하는 청중으로서의 역할, 넷째, 교사와 학부모조직, 동료 학부모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다섯째, 학교 정책에 대한 자문가 또는 공동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Lyons⁵⁰⁾은 학교와 가정간의 의사소통, 지원자, 교사, 학습자, 자문 및 의사결정자로서의 학부모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으며, Schickendarz⁵¹⁾는 학부모 참여 활동을 교사와의 관련성 차원에서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일 낮은 수준은 학교의 의사결정권이나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활동 유형이다. 교사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이라든지 학부모회의 참가, 뉴스레터 발간 등과 같이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알리는 일들을 말하며, 두 번째 수준은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에 참관, 참가하는 활동이다. 수업관찰, 수업 보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수준은 학부모들이 학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자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교직원 인사, 예산, 교육과정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학부모들의 활동 유형을 종합하여 이순형⁵²⁾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정에서의 학습지도자 활동,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교육행사에의 참관 활동, 의사결정 활동 등이 전형적인 것이고, 그 외 학교프로그램의 지원 활동, 의사소통 활동, 문제 해결 활동 등이 중요하게 지적된다고 하였다. 다시 크게 나누어 교사,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준전문가 등 학생의 직접적인 학습지도 활동과 관련된 교수 및 그 보조 활동, 학교 행사에의 참관자, 상담 및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 학생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교수의 조력활동, 자녀 교육에의 여러 주장 및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 이에

50) L. M. Lyons et al, *Involving Partners : A Handbook for Participation*(Santa Monica, C.A : System Development corp., 1982), p. 162 ;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통권 제 30호 제2권(1992) : p. 251.에서 재인용.

51) J. A. Schickendarz, *Parents, Teachers and Early Education*, In B. Perky, L. Colubcheck(eds.) *Early Childhood Education* (Wayne, NJ : Avery), p. 12 ; 임연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논리 탐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0권 제2호(2002), p. 155.에서 재인용.

52)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통권 제 30호 제 2권(1992), p. 251.

따른 필요한 지식·기능 등을 습득하는 성인학습자 활동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보면,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영역을 학습지도, 학교지원, 자원봉사, 학교행사 참관, 학교경영의 자문 및 정책결정, 성인학습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3)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효과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 의식은 아직 그다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있는 교육 및 학교경영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제도 아래 국가가 제공하는 학교교육에 의지하여 왔고 학부모는 그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제도적으로 학교경영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⁵³⁾.

그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 기회와 폭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이에 동참하려는 학부모의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재정을 확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는 재정지원자로서 또는 여러 영역의 학교경영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학부모는 학교경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충해 줄 수 있는 역할 뿐 아니라 학교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실 수업의 보조자로서, 각 종 행사 등의 조력자로서, 청소년 단체 및 스포츠 활동 등의 활동의 조수로서의 역할 등

53) 김신일 외, 시민의 교육학 (서울 : 한길사, 1995), p. 43.

을 할 수 있다.

학교경영의 유지·발전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공교육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 재정적 후원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후원만 기대할 경우 학부모들의 참여 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학교경영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보고로서 학부모의 역할과 존재의 재발견은 학부모 참여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Parent-Teacher Association(PTA) 등의 학부모 모임, 수업공개, 학생의 성적향상, 그 외 많은 학교행사 등이 이를 유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로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수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PTA를 가진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⁵⁴⁾.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학교경영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이다. 모든 공적 체제는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함으로써 존속할 의의를 가지게 된다. 국민, 학부모의 지지는 학교체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학교경영의 최종목표는 학생성취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학교행정가는 일반적으로 그 과업의 면에서 교직원 관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복지, 시설·재정지원, 학교·지역사회 개선 등에 책임을 갖는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서 보면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관계는 학생성취를 조장하기 위해 학교행정과업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교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체제라 할 수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수립하는데 소홀히 해 온 측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 실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여'이다. 교육실천 방법으로서의 참여는 '참여'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학습, 경험, 체득되는 것이다.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⁵⁴⁾ Christopher Jenks, The Coleman Report and Conventional Wisdom, in F. Mosteller and D. Moynihan, (eds.) On Equality of Opportunity (New York : Vintage Books, 1978);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통권 제30호 제2권 (1992) :에서 재인용.

학교경영에 개인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조직적, 체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가 학부모, 지역사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운영의 체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4.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형태 변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위원회

8.15 해방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취학 인구에 비해 수용할 교육 시설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교위원회의 성격을 띤 각 종 학부모 단체가 발족되었다. 1947년 당시 교육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5.5%에 불과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비 중 공공경비 부담이 30% 미만이었고 학교 경비의 7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전쟁 재해 학생위원회(1946), 사범학교 후원회 연합회(1948), 서울시 중등학교 후원회(1949), 국민학교 후원회 연합회(1953) 등의 학부모회가 이때 발족하였는데 이 후원회들은 학교의 물질적 후원에 중점을 두고 교실의 확보와 교원의 생계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후원회들은 부족한 교육시설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학교 행정 간섭이라는 문제와 학교간의 격차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⁵⁵⁾.

55) 이동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6), p.13.

2) 사친회

사친회는 학교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으로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계획, 교육연구, 설비, 보건, 문화, 교양, 지도 등 제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교외 지도는 학생들의 교외 생활을 즐겁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 재정의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후생복지와 교육활동에도 협조하는 등 학교 교육 본질에 접근한 활동이었고 자주적 단체였다⁵⁶⁾.

3) 학교 기성회

기성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업으로는 내부 시설물의 보완과 증축, 부족 교실의 신축 교사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학교 운영이 보조 사업 등이 있다⁵⁷⁾.

학교 기성회는 오로지 교실의 건축, 확충을 위한 단체였으나 5.16 이후 교원에 대한 연구비까지도 지급하게 되었다⁵⁸⁾.

4) 육성회

1969년말 문교부는 ‘잡부금 양성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1970년 2월 ‘학교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성회를 해체시키고 육성회를 발족시켰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의 두 번째 항목에는 “국가 재정 형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학교부형들이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협찬, 부담하는 방안을 승복한다면 이를 받아 들

56) 조창신, 학교육성회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6.

57) 조창신, 전개논문, p. 17.

58) 어대수, 학교 육성회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육성회 운영의 대강은 첫째, 회비 기준액은 시·도 교육감이 학부모 부담능력, 당해지역 생계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되 학부모의 소득 계층에 차등 책정한다. 둘째, 교사는 회비 징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 육성회 예산은 교사 생계 보조에 60%, 학교 운영비에 36%, 학생복지비에 4%를 사용한다 등이다.

그러나 육성회는 출범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모순 많은 운영 지침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효과에 퇴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⁵⁹⁾. 이후 육성회는 여러 차례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왔는데 육성회의 발족 후 금지된 잡부금의 부활, 육성회 찬조금의 과다 및 강제 징수, 부당한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의해 육성회 찬조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⁶⁰⁾.

5) 어머니회

어머니회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1983년 6월 문교부 공문으로 학교 새마을어머니회 조직 운영을 권장한 결과 설립된 것으로 이듬해 말에 전국 초·중·고교의 88%인 9,250개에 조직·운영되었다가 제5공화국의 마감과 함께 명칭 변경되어 현재 학부모회와 함께 학부모회의 양대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기구의 역할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면 어머니회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학부모회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5.31 교육개혁에 따라 육성회비의 명칭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바뀌었으며 학부모회와 어머니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⁶¹⁾.

59) 조선일보, 학교육성회 출범 1개월 그 운영의 묘는 실현되었나 (1970. 4. 25)

60) 이동기, 전개 논문, p. 15.

61) 이동기, 전개논문, p. 16.

6)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가정통신문을 통해 특기가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추천받아 담임교사와의 면담, 학부모협의회 등을 거쳐 특기 지도가 가능한 학부모를 발굴하여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계발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시, 명예교사 협의회 및 연수회를 마친 후 계발활동 부서를 맡겨 지도케 한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발활동을 다양하게 조직·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계발활동 부서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하게 되어 생동감이 넘치고 내실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교사인 학부모에겐 보람을 갖게 하고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7) 학교운영위원회

1995년 5.31교육개혁안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도 조례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도 2학기부터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1998년도 1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전면 실시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학교운영회의 주요 업무로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으로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의 예산과 결산, 선택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 선정,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및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내용, 급식품의 선정, 조달 방법, 급식비 결정 등 급식 관련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일반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청원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학교나 관할청에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육성회는 폐지되고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학부모 이외의 인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학교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학교장과 의논하여 그 사용방법과 사용처를 정할 수 있다.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초빙을 위한 ‘교장추천위원회’ 및 교사 초빙을 위한 ‘교사 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의결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의 봉사 활동 및 학생지도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되었다. 특히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상급교육청이 사실상 독점해 온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학교로 돌려줬다는 측면에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⁶²⁾.

5. 외국의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실태

외국의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실태는 그 나라의 정치 및 행정 체제, 사회적·역사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한데 대체로 지방자치제를 통한 참여, 학부모단체나 조직을 통한 참여,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법제화와 학교경영에의 참여 등과 같은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⁶²⁾ 남정길, 전계서 : p. 338-344.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연방제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주권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정권이 실현되어 왔으며, 전국 규모의 학부모단체가 사회단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학부모 교육은 1960년대 이후 “학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이해 및 기술을 부여하는 체계이고 개념화된 교육적 처치”로서 여러 이론적 입장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⁶³⁾.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기초로, 특히 학부모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 대상 자녀의 연령, 주된 교육실시 기관 및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국가들은 학부모 참여를 학부모의 권리로 보고 있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같은 국가에서는 교육권리를 수십 년 동안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덴마크,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⁶⁴⁾.

프랑스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의 심의 기구인 국가 수준 및 도 단위, 읍 단위 등의 국민교육심의회에 참여할 대표권을 갖고 있다⁶⁵⁾. 스페인에서는 학교 교육 서비스의 성격과 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진작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외국의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63) 정용하, 학부모의 교육 참여 특성과 만족도 분석 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64) OECD(1994), Parents As In Schooling (Paris : OECD), pp. 29-30. : 임연기,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논리 탐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0권 제2호 (2002) : p. 153에서 재인용.

65) 남정걸, 전계서 : p. 310.

보기로 한다.

1) 미국

미국의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학교경영 참여 조직으로는 Parent-Teacher Association(PTA : 학부모 · 교사협의회), 학부모자문위원회(PAC : Parent Advisory Council), 후원회(BC : Booster Club) 등이 있다. 이들의 기능에 있어서 PTA와 PAC를 비교해 보면, PTA는 참여를 원하는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반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는 친목 조직으로서 주로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AC는 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보다 교육전문적 상황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위 학교의 PTA는 학부모와 교사가 연대하여 활동하는 협의체로 학교의 교육정책,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부모의 관심제안, 학생시상문제, 지진아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학생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주로 협의한다. 그리고 명예교사, 도서관 운영, 그 외 학교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며 PTA신문을 발간하기도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학교자문위원회로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운영권을 가능한 각 교육청 및 학급 학교에 부여한다는 주교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주가 있다. 미국은 자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학교교육에 간접적인 참여형태로 학부모의 선택권 허용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학교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하여 질 좋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 특히 학부모의 학교 참여 형태 중에서 ‘학교자원봉사자(Volunteer)’라는 제도가 미국교육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제도이다. 학기 초에 대개 학교로부터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학부모들이 얼마간 시간을 내어 학교를 도와 줄 수 있는 봉사활동 목록을 알려준다. 내용으로 교

내 도서관 책 정리, 서류타이핑, 학교비품 수선,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교육활동, 개인 학습지도 등 다양한 학교경영 업무를 제시한다.

미국의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넓히기 위해 교육위원회 입후보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운동을 벌인다. 국민의 교육의사는 선거를 통하여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여론은 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지역교육문제는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결려지고 있다⁶⁶⁾.

2) 영국

영국에서 1970년 초의 소비자 보호운동에 힘입은 영국 학부모들의 교육 보고서는 가정과 학교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분수령을 이루는 것으로 학부모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학교와 가정의 거리를 좁히는 전환을 가져 왔다. 가정환경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학업성취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Plowen보고서는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다.

즉, 노동계층의 학부모가 중산계층의 학부모보다 교육적 관심이 덜하고, 또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음으로서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하고, 아이들의 학부모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자녀의 학업성취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⁶⁷⁾.

최근 영국은 교육과정, 인력관리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방교육청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일상적인 개별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교육행정체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England 교육을 중심으로 관장하는 교육과학부, 각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청, 일선학교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장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86년 교육법에 의해 개별 단위학교에 설치된 기구로서 학

66) 남정걸, 전제서 : p. 347-348.

67) 정용하, 학부모의 교육 참여 특성과 만족도 분석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 57.

교운영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전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교장과 협력하기 위해 공식적 기구이며 현재 특수학교, 교부금 지원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1988년의 교육개혁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자치체인 Local Management Schools(LMS)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별학교마다 설치하게 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간 지방교육청들이 갖고 있던 해당 지역학교 및 교육에 대한 지나친 자율권을 견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을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중요한 고려 사항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학교규모에 따라 9-19명으로 구성된다. 600명 이상의 학생수를 가진 학교의 경우 총 위원 수는 19명이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위원 5명, 지역교육청의 임명위원 5명, 각계대표가 6명에 교장, 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 진행, 법적인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모든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학부모 위원들은 그들의 자녀가 학교를 떠난 뒤에도 잔여임기동안 계속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원이 6개월 이상 불참하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조치이다⁶⁸⁾.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은 교육법과 학교 관리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빈도는 사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매 학기에 한 번은 모여야 하며, 위원회의 정족수는 최소한 3명이 되거나 전체 인원의 1/3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특별히 책임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정족수의 2/3가 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회의 진행 전에 인원의 사전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각 안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위원들의 투표로서 이루어지며 의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매 학기 첫 회의 시 의

68) 남정걸, 전계서 : p. 350.

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단, 학교에 고용된 위원은 의장이 될 수 없다. 의장은 위원회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대변자로서 교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자원인사가 된다.

한편 위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며 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재정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 건물관리소위원회 등이 그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활동 경과를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부모들에게 평가받는다.

LMS에 의해 단위 학교는 지방교육청에서 배분한 예산을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각 학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LMS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LMS 도입의 결과로 학교 재정에 관한 지방교육청의 역할은 더 전략화 되었고 개별학교 안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통제는 멀어졌다. 지방교육청은 다만 단위학교에 배분하는 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를 결정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⁶⁹⁾.

학교운영위원회는 배정 받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경영 목표, 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들과 연계시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한다. 물론 운영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교장의 조언 및 자문을 받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에게 일부 의사결정을 위임받기도 한다. 특히 재정 문제를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위원회에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하는 내용은 크기, 지역 환경, 학교의 발전대책 등이다.

3) 독일

독일의 학교 경영에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학교

69) 나병현, 영국의 지방교육자치 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국제문제분석 제24호, 국제입법조사분석실(1995), p. 17.

경영 참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⁷⁰⁾. 독일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교육행정조직상의 구성 부분이기도 하다. 공립학교의 설립과 변경, 존속과 폐지는 학교 감독관청의 소관 사항이며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학교 유지와 재정, 학교 건물 및 재산에 대한 관리도 학교설립자의 과제에 속하며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 이처럼 학교는 교육행정체제의 최하급조직으로서 국가의 학교감독권 및 설립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학교는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의 무제한적 자유는 인정되고 있지만 학교의 독립적 관리와 책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자유재량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학교는 재량 영역의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학교감독관청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명령이나 지침에 의해 재량영역을 침해할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⁷¹⁾.

학교에서 재량권이 가장 인정되는 영역은 학교교육활동 영역이며, 학생의 입학허가, 징계처분, 교육효과, 진로 상담 등과 같이 학생보호와 직접 관련된 영역에서도 인정된다.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교경영의 책임이지만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교육의 자율도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사와 그 합의체인 교사협의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교사협의회는 학교의 수업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조치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서로의 지식과 관심을 교환하며 교사를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사집단의 자치기관이다. 진급결정, 학생징계 처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전체교사협의회는 결정은 학교장과 교사가 따라야 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학교조직 변경, 학교규칙, 통학 수단 등을 결정한다.

70) 허중렬, 학교민주화와 학교참가권 : 독일을 중심으로, 새교육 통권 479호(1994), pp. 98-105.

71) 김미영, 학교경영 자율성 신장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보고 제12권 제1호 (1994), p. 39.

학교협회의 성격은 심의나 자문기구라는 성격보다는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학교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행정기관의 통제를 제약함으로써 학교의 자치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학교협회는 최소한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교협회의 의장이 되며, 학부모 협의회장은 의장대리가 된다.

학교협회에는 교사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이 참가한다. 학교협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타이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학교협회는 적어도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적어도 1/3의 제안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학교와 가정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학교협회와 별개로 학부모 회의가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양한 형태와 범위에 걸쳐서 학부모의 학교 참가권이 보장되어 있다.

학부모 협회의 역할은 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격려,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보호,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한 협조, 학교행사의 공동 개최, 학교 설립자의 학부모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독일의 경우는 학교 경영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함으로써의 학교가 갖는 상대적 자유의 폭도 그만큼 다양한 것이다. 학교가 갖는 자율성의 범위는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본

일본에서 '학부모-교사연합회(PTA)'의 역사는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녀를 지키는 책임과 권리를 발휘하여 왔다. 점차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고취되었고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부모와 교사를 위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PTA가 조직·운영되고 있다⁷²⁾.

⁷²⁾ 장길자, 전제 논문, p. 51.

전후 교육개혁기에 CIE(총사령부 민간 교육정보부)의 지도하에 문부성이 1947년 3월 ‘부모와 선생의 회’ 참고 규약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대다수에 PTA가 결성되었다. 즉, 미국의 PTA를 본받아 법률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PTA는 미국의 PTA운동과는 조직적 실태를 달리하여 일반적으로 각 학교를 단위로 하고 재학생의 부모와 교직원을 구성원으로 한 학교 관계조직의 성격을 가졌다. 1990년대까지는 각 학교의 재정적 후원단체로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목적 조항에 나와 있듯이 재정 지원 활동 외에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과 참여의 활동도 상당했다. PTA는 직역하면 부모와 선생의 회이나, 이 경우 선생은 교직원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즉, PTA의 구성원은 해당 학교의 재적중인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의 교직원으로 하여 양자가 대등하게 의논하고 결정하고 시해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일본의 PTA는 재정 면에서 학교후원회적 성격을 많이 갖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직 그러한 역할을 학교가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시금 PTA 본래의 역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PTA 교사부회를 상대적으로 독립시켜 부모에게 자유로운 의논을 보장하는 조직으로서 인정하고 그 외에 교사회와의 공동 활동 전개를 추구하는 PTA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PTA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⁷³⁾.

첫째는 회원 자격의 문제로서 PTA는 본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전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교직원과 부모가 일체가 되어 PTA의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임원선출의 문제이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지고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늘어나면서 PTA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이 임원이 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PTA가 그 본래의 목적보다 좋게 달성

73) 장길자, 전계 논문, p. 52.

할 수 있게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 주간에 PTA 회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으나 일요일 혹은 밤에 회합을 가져야 함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과거의 교육자치제 하에서도 일본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고조되었다.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 내용이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극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⁷⁴⁾.

일본에서 학교의 자주성, 더 나아가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전개되어 왔고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 경영의 기본 개념이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구성원이 교육법규와 행정적 기반 하에서 부모 및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교육활동을 계획·실시·평가하는 권한과 책임의 체제로 인식된다.

⁷⁴⁾ 유현숙,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4-2(1994), p. 61.

6. 선행 연구의 고찰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관한 논문은 많이 있으나 그것들은 주로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도와 학교의 수용자세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는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윤정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의 참여의식에 관하여는, 학부모의 참여 정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참여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별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은 참여를, 연령별로는 비슷한 참여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근소한 차이지만 고졸 학부모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높은 참여 정도를 나타냈으며,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의 주요 계획이나 행사를 안내하거나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일, 학교의 각종 활동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실 운영의 활성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⁷⁵⁾.

유주선은 학부모들이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행·재정이나 학부모 참여와 같이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분야는 비교적 관심이 떨어져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학교 교육수요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⁷⁶⁾

이혜숙은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경영 참여 실태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고학력과 현상 및 경제적인 여유 등에

75) 윤정하,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의식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6) 유주선,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만족의 정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의해 인식영역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장애 요인에 의해 경험영역에서 지원·협조 등의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견이 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체가 운영되어야 하며, 창구와 운영시간의 다양화가 되어야 하고, 다양한 선택을 위한 홍보와 학부모의 역할을 위한 제도 및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부모 참여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의 개선과 수용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⁷⁷⁾.

정충혁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참여의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 기회가 주어진 경우 학교가 학부모 집단을 낙담시키거나 소외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홍보나 자료 전달의 과정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도 민주화 된 내용이 아닌 정부시책이나 홍보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회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사 자신들의 전문적 권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접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인식시켜주어야 함이 과제로 지적된다고 하였다⁷⁸⁾.

윤종옥은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 탐색’에서, 학부모 단체에 가입한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 인식 정도가 높아 학부모들이 공식 학부모단체를 통해서만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참여시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학부모들이 질적 의식을 높여 재정이나 단순한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자문·정책 결정에 관한 활동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후원단체에서 체계적이고

77) 이해숙,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방식에 관한 연구(한국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8) 정충혁,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제도적인 참여방법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⁷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참여 정도는 소극적인 편이었고, 참여 영역과 방식도 비교적 폭이 좁고 수동적이었다. 이의 원인을 학교와 학부모 양쪽 모두의 공통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참여에 대한 인식과 영역의 확대와 학교의 개방적인 운영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면서 개인의 요구를 우선으로 하며 그에 따른 공적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의 학교경영 방향의 전환이 현안이라는 흐름에 비춰볼 때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그것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및 공유와 그에 따른 제도의 개선 등은 시대적인 요구가 되어가고 있다.

79) 윤중옥,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 탐색(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경영 참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설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5개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각 학교당 무작위로 2개 학급을 표본집단으로 추출하여 5개 학교 총 10개 학급의 학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표1>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율 (%)

구분	배경변인	배부설문지수	회수설문지수	회수율
거주 지역	강북구	13	11	84.62
	강남구	20	15	75.00
	노원구	190	181	95.26
	도봉구	57	56	98.24
	서초구	40	32	80.00
전체		320	295	92.19

<표1>과 같이 총 320부를 배부하여 295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2.19%이었고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설문지들을 검토한 결과 전체 295부 모두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는 <표2>와 같다.

<표2>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

구분	배경변인	인원	백분율(%)
연령	30대	21	7.1
	40대	264	89.5
	50대 이상	10	3.4
거주 지역	강북구	11	3.7
	강남구	15	5.1
	노원구	181	61.4
	도봉구	56	19.0
	서초구	32	10.8
학력	고졸	78	26.4
	전문대졸	48	16.3
	대졸이상	169	57.3
직업	회사원	102	34.6
	생산직	16	5.4
	판매 서비스업	44	14.9
	전문직	47	15.9
	공무원	24	8.1
	기타	62	21.0
전체		295	100.0

2. 연구의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설문지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질문지의 내용

영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영역	설문 내용	문항 번호
학교경영 관련 정책 및 제도 인식	교육자치제 인식	1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인식 및 실태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	14
	교육정책 수립·집행	2		학교경영활동 참여 유무	15
	학교교육 불만점	3		학교경영활동 참여 경험	16
	학교운영위원회 효용	4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방안	학교경영 정보 공개	17
	학교경영 현황 인지 여부	5		교육과정·계획 참여 여부	18
	학교경영 참여 안내	6		학·운·위제도 개선 여부	19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인식 및 실태	학교경영 참여 의향	7		학·운·위제도 개선 영역	20
	학교경영 참여 필요 이유	8		교원인사 참여 여부	21
	학교경영 참여 불필요 이유	9		학교경영참여확대 선결 조건	22
	학교경영 참여 활성화 정도	10		학교경영 참여 희망 영역	23
	학·운·위 기여 여부	11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방법	24
	학·운·위 산하단체 기여도	12		학교경영 참여 의사	25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이유	13			

3. 자료의 처리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2) 배경변인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산출하고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X^2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VI. 결과분석 및 해석

1. 학교경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1) 교육자치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표 4> 교육자치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정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4(20.0)	12(60.0)	4(20.0)		$\chi^2=3.362$ df=8
	40대	7(2.7)	65(24.9)	132(50.6)	52(19.9)	5(1.9)	
	50대 이상		1(10.0)	6(60.0)	3(30.0)		
거주 지역	강북구	1(9.1)	3(27.3)	6(54.5)	1(9.1)		$\chi^2=15.347$ df=16
	강남구	1(6.7)	6(40.0)	6(40.0)	2(13.3)		
	노원구	4(2.3)	36(20.3)	98(55.4)	36(20.3)	3(1.7)	
	도봉구	1(1.8)	13(23.2)	25(44.6)	15(26.8)	2(3.6)	
	서초구		12(37.5)	15(46.9)	5(15.6)		
학력	고졸	1(1.3)	11(14.3)	45(58.4)	18(23.4)	2(2.6)	$\chi^2=7.921$ df=8
	전문대졸	2(4.3)	13(27.7)	24(51.1)	7(14.9)	1(2.1)	
	대졸이상	4(2.4)	46(27.5)	81(48.5)	34(20.4)	2(1.2)	
직업	회사원	3(3.0)	26(25.7)	53(52.5)	17(16.8)	2(2.0)	$\chi^2=19.750$ df=20
	생산직		3(18.8)	7(43.8)	4(25.0)	2(12.5)	
	판매 서비스업	1(2.3)	10(22.7)	23(52.3)	10(22.7)		
	전문직	2(4.3)	12(25.5)	23(48.9)	9(19.1)	1(2.1)	
	공무원		7(30.4)	9(39.1)	7(30.4)		
	기타	1(1.7)	12(20.0)	35(58.3)	12(20.0)		
전체		7(2.4)	70(24.1)	150(51.5)	59(20.3)	5(1.7)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

하여 본 결과, 전체집단의 응답비율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및 ‘보통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70%를 넘어 학부모들의 교육자치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거주지역별로는 강남구 및 서초구지역 거주자들이 타 지역 거주자들보다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졸자보다는 대졸자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회사원, 전문직 및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 정도가 비교적 높아, 연령보다는 거주환경 및 학력과 직업별로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국 및 광역지자체 교육제도·정책 수립과정 학부모 참여정도 인식

<표5> 전국 및 지자체 단위 교육제도·정책 수립 학부모 참여정도 인식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2(9.5)	5(23.8)	13(61.9)	1(4.8)	$\chi^2=5.090$ df=8
	40대	6(2.3)	18(6.9)	113(43.5)	110(42.3)	13(5.0)	
	50대 이상		1(10.0)	4(40.0)	5(50.0)		
거주 지역	강북구			4(36.4)	5(45.5)	2(18.2)	$\chi^2=16.754$ df=16
	강남구	1(7.1)		6(64.3)	4(28.6)		
	노원구	4(2.2)	16(9.0)	77(43.3)	75(42.1)	6(3.4)	
	도봉구	1(1.8)	3(5.4)	20(35.7)	29(51.8)	3(5.4)	
	서초구		2(6.3)	12(37.5)	115(46.9)	3(9.4)	
학력	고졸	3(3.9)	7(9.1)	36(46.8)	30(39.0)	1(1.3)	$\chi^2=10.282$ df=8
	전문대졸		5(10.4)	23(47.9)	18(37.5)	2(4.2)	
	대졸이상	3(1.8)	9(5.4)	63(38.0)	80(48.2)	11(6.6)	
직업	회사원	3(3.0)	7(6.9)	46(45.5)	40(39.6)	5(5.0)	$*\chi^2=37.321$ df=2
	생산직	3(20.0)	1(6.7)	7(46.7)	3(20.0)	1(6.7)	
	판매 서비스업		4(9.1)	18(40.9)	21(47.7)	1(2.3)	
	전문직		5(10.6)	19(40.4)	21(44.7)	2(4.3)	
	공무원		1(4.2)	12(50.0)	9(37.5)	2(8.3)	
	기타		3(5.0)	20(33.3)	34(56.7)	3(5.0)	
전체		6(2.1)	21(7.2)	122(41.9)	128(44.0)	14(4.8)	

*p<.05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정책을 실제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본 결과,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우 그렇다’‘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9.3%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인에서는 30대에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40대 역시 긍정적인 응답이 9.2%에 불과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조사대상 전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은 10% 내외에 머물러 지역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를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정책 수립·집행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직업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현 교육자치제하에서 자녀 학교교육 불만사항

<표6> 현 교육자치제하에서 자녀교육 불만사항 (%)

구분	배경변인	국가적 교육체제	학교운영 비민주성	학교교육 환경미비	교사전문 성부족	기타	
연령	30대	15(71.4)	2(9.5)	1(4.8)	3(14.3)		$\chi^2=4.038$ df=8
	40대	159(61.6)	16(6.2)	44(17.1)	35(13.6)	4(1.6)	
	50대 이상	7(77.8)		1(11.1)	1(11.1)		
거주 지역	강북구	7(63.6)	1(9.1)	2(18.2)	1(9.1)		$\chi^2=9.290$ df=16
	강남구	11(73.3)	2(13.3)	1(6.7)	1(6.7)		
	노원구	107(61.1)	8(4.6)	28(16.0)	29(16.6)	3(1.7)	
	도봉구	35(63.6)	5(9.1)	10(18.2)	5(9.1)		
	서초구	21(65.6)	2(6.3)	5(15.6)	3(9.4)	1(3.1)	
학력	고졸	43(57.3)	2(2.7)	16(21.3)	12(16.0)	2(2.7)	$\chi^2=8.134$ df=8
	전문대졸	33(68.8)	4(8.3)	4(8.3)	6(12.5)	1(2.1)	
	대졸이상	105(63.6)	12(7.3)	26(15.8)	21(12.7)	1(0.6)	
직업	회사원	68(68.7)	5(5.1)	12(12.1)	10(10.1)	4(4.0)	* $\chi^2=29.994$ df=20
	생산직	7(43.8)		4(25.0)	5(31.3)		
	판매 서비스업	23(52.3)	3(6.8)	9(20.5)	9(20.5)		
	전문직	29(61.7)	1(2.1)	10(21.3)	7(14.9)		
	공무원	14(58.3)	4(16.7)	5(20.8)	1(4.2)		
	기타	40(69.0)	5(8.6)	6(10.3)	7(12.1)		
전체		181(62.8)	18(6.3)	46(16.0)	39(13.5)	4(1.4)	

*p<.05

현 교육자치제 아래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표6>과 같이 국가적 교육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8%로, 배경변인별로 생산직(43.8%)을 제외한 전 변인 군에서 50% 이상 70% 내외가 국가적 교육체제의 문제를 꼽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강북보다는 강남거주자가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전문직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교육환경의 미비’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직업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학교경영참여 기여도 인식

<표7>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도 인식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1(4.8)	8(38.1)	5(23.8)	7(33.3)		$x^2=5.829$ df=8
	40대	10(3.8)	63(2.42)	118(45.4)	62(23.8)	7(2.7)	
	50대 이상		2(20.0)	5(50.0)	3(30.0)		
거주 지역	강북구		4(36.4)	3(27.3)	4(36.4)		$x^2=16.938$ df=16
	강남구	1(6.7)	4(26.7)	8(53.3)	2(13.3)		
	노원구	8(4.5)	48(27.0)	77(43.3)	40(22.5)	5(2.8)	
	도봉구		10(17.9)	23(41.1)	22(39.3)	1(1.8)	
	서초구	2(6.5)	7(22.6)	17(54.8)	4(12.9)	1(3.2)	
학력	고졸	1(1.3)	20(26.0)	27(35.1)	26(33.8)	3(3.9)	$x^2=9.026$ df=8
	전문대졸	3(6.4)	13(27.7)	20(42.6)	10(21.3)	1(2.1)	
	대졸이상	7(4.2)	40(24.0)	81(48.5)	36(21.6)	3(1.8)	
직업	회사원	6(6.0)	23(23.0)	50(50.0)	19(19.0)	2(2.0)	$x^2=20.928$ df=20
	생산직		1(6.3)	8(50.0)	6(37.5)	1(6.3)	
	판매 서비스업	2(4.5)	16(36.4)	12(27.3)	12(27.3)	2(4.5)	
	전문직	2(4.3)	13(27.7)	20(42.6)	10(21.3)	2(4.3)	
	공무원		6(25.0)	12(50.0)	6(25.0)		
	기타	1(1.7)	14(23.3)	26(43.3)	19(31.7)		
전체		11(3.8)	73(25.1)	128(44.0)	72(24.7)	7(2.4)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로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72.0% 정도가 나왔다. 미흡하다는 인식은 연령으로는 40대에서, 거주지로는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학력으로는 대졸자 이상의 계층에서 많이 나왔고 직업군에서는 회사원 및 생산직군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왔고 판매서비스업이나 전문직군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더 많고 부정적 반응은 적었다. 한편 집단간 유의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경영 현황 인식 여부

<표8> 자녀 재학학교 학교경영 현황 인식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1(4.8)	7(33.3)	12(57.1)	1(4.8)	$\chi^2=7.433$ df=8
	40대	4(1.5)	28(10.6)	133(50.4)	84(31.8)	15(5.7)	
	50대 이상		1(10.0)	4(40.0)	5(50.0)		
거주 지역	강북구		2(18.2)	7(63.6)	2(18.2)		$\chi^2=16.938$ df=16
	강남구		2(13.3)	7(46.7)	6(40.0)		
	노원구	3(1.7)	20(11.0)	88(48.6)	63(34.8)	7(3.9)	
	도봉구		2(3.6)	27(48.2)	21(37.5)	6(10.7)	
	서초구	1(3.1)	4(12.5)	15(46.9)	9(28.1)	3(9.4)	
학력	고졸	1(1.3)	8(10.3)	30(38.5)	35(44.9)	4(5.1)	$\chi^2=10.626$ df=8
	전문대졸	2(4.2)	5(10.4)	27(56.3)	11(22.9)	3(6.3)	
	대졸이상	1(6)	17(10.1)	87(51.5)	55(32.5)	9(5.3)	
직업	회사원	1(1.0)	8(7.8)	52(51.0)	35(34.3)	6(5.9)	$\chi^2=17.351$ df=20
	생산직	1(6.3)	2(12.5)	5(31.3)	5(31.3)	3(18.8)	
	판매 서비스업	1(2.3)	5(11.4)	19(43.2)	16(36.4)	3(6.8)	
	전문직	1(2.1)	5(10.6)	21(44.7)	19(40.4)	1(2.1)	
	공무원		3(12.5)	13(54.2)	6(25.0)	2(8.3)	
	기타		7(11.3)	34(54.8)	20(32.3)	1(1.6)	
	전체	4(1.4)	30(10.2)	144(48.8)	101(34.2)	16(5.4)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경영 현황은 응답자의 11%정도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 대부분이 학교경영 현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와 도봉구 거주자 및 고졸 학부모들의 부족하다는 응답이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도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공

무원인 경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평균치와 비슷했으나 부정적인 응답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다소 방관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6)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안내 실태 인식 여부

<표9> 학교경영 안내 실태 인식 여부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1(4.8)	3(14.3)	10(47.6)	5(23.8)	2(9.5)	$\chi^2=6.406$ df=8
	40대	6(2.3)	69(26.6)	124(47.9)	52(20.1)	8(3.1)	
	50대 이상		1(10.0)	6(60.0)	3(30.0)		
거주 지역	강북구		2(18.2)	7(63.6)	2(18.2)		$\chi^2=10.538$ df=16
	강남구	1(7.1)	2(14.3)	7(50.0)	4(28.6)		
	노원구	5(2.8)	48(27.0)	86(48.3)	34(19.1)	5(2.8)	
	도봉구	1(1.8)	10(18.2)	28(50.9)	13(23.6)	3(5.5)	
	서초구		11(34.4)	12(37.5)	7(21.9)	2(6.3)	
학력	고졸	2(2.6)	18(23.7)	34(44.7)	22(28.9)		$\chi^2=8.148$ df=8
	전문대졸	1(2.1)	11(23.4)	26(55.3)	7(14.9)	2(4.3)	
	대졸이상	4(2.4)	44(26.3)	80(47.9)	31(18.6)	8(4.8)	
직업	회사원	3(3.0)	24(23.8)	51(50.5)	20(19.8)	3(3.0)	$\chi^2=22.674$ df=20
	생산직	1(7.1)	6(42.9)	4(28.6)	3(21.4)		
	판매 서비스업		7(16.3)	21(48.8)	13(30.2)	2(4.7)	
	전문직	3(6.5)	14(30.4)	20(43.5)	6(13.0)	3(6.5)	
	공무원		6(25.0)	9(37.5)	8(33.3)	1(4.2)	
	기타		16(25.8)	35(56.5)	10(16.1)	1(1.6)	
전체		7(2.4)	73(25.2)	140(48.3)	60(20.7)	10(3.4)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안내 인식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그렇다’는 응답은 30%에 미달하고 미흡하다는 인식이 70%가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현저히 낮고, 거주지역은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낮았으며, 전문직이 다른 집단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적었다.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인식 및 실태

1)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필요성 인식

<표10>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필요성 인식 (%)

구분	배경변인	반드시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연령	30대	3(15.8)	10(52.6)	5(26.3)		* $\chi^2=19.961$ df=8
	40대	62(26.4)	133(56.6)	32(13.6)	8(3.4)	
	50대 이상	2(20.0)	6(60.0)	2(20.0)		
거주 지역	강북구	1(9.1)	8(72.7)	2(18.2)		$\chi^2=14.584$ df=16
	강남구	2(15.4)	7(53.8)	4(30.8)		
	노원구	43(26.2)	96(58.5)	18(11.0)	6(3.1)	
	도봉구	10(20.4)	26(53.1)	11(22.4)	2(4.1)	
	서초구	11(40.7)	12(44.4)	4(14.8)		
학력	고졸	10(14.3)	42(60.0)	15(21.4)	3(4.3)	$\chi^2=13.243$ df=8
	전문대졸	9(20.9)	24(55.8)	9(20.9)	1(2.3)	
	대졸이상	48(31.8)	83(55.0)	15(9.9)	4(2.6)	
직업	회사원	24(27.3)	52(59.1)	10(11.4)	1(1.1)	$\chi^2=21.698$ df=20
	생산직	3(20.0)	8(53.3)	3(20.0)	1(6.7)	
	판매 서비스업	8(19.5)	22(53.7)	9(22.0)	2(4.9)	
	전문직	18(40.0)	21(46.7)	4(8.9)	2(4.4)	
	공무원	8(38.1)	10(47.6)	3(14.3)		
	기타	6(11.1)	36(66.7)	10(18.5)	2(3.7)	
전체		67(25.4)	149(56.4)	39(14.8)	8(3.0)	

* $p < .05$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는 <표10>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매우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인군 별로 40대와 노원구와 서초구 거주자, 대졸 이상의 학부모 및 회사원, 전문직과 공무원인 학부모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변인에서 $p<.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연령에 따른 집단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2)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이유

<표11>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이유

(%)

구분	배경변인	권리이며 의무	교육효과 상승	교육환경 개선	민주적 학교운영	
연령	30대	1(7.1)	8(57.1)	4(28.6)	1(7.1)	$x^2=1.554$ df=6
	40대	24(11.4)	101(48.1)	78(37.1)	7(3.3)	
	50대 이상	1(12.4)	4(50.0)	3(37.5)		
거주 지역	강북구	2(20.0)	6(60.0)	2(20.0)		$x^2=13.814$ df=12
	강남구		7(70.0)	2(20.0)	1(10.0)	
	노원구	16(11.3)	71(50.0)	52(36.6)	3(2.1)	
	도봉구	4(9.1)	15(34.1)	22(50.0)	3(6.8)	
	서초구	4(15.4)	14(53.8)	7(26.9)	1(3.8)	
학력	고졸	4(7.4)	19(35.2)	26(48.1)	5(9.3)	$*x^2=13.491$ df=6
	전문대졸	4(11.1)	20(55.6)	12(33.3)		
	대졸이상	18(12.7)	74(52.1)	47(33.1)	3(2.1)	
직업	회사원	11(12.6)	50(57.5)	24(27.6)	2(2.3)	$x^2=15.170$ df=15
	생산직	2(33.3)	1(16.7)	3(50.0)		
	판매 서비스업	3(8.8)	16(47.1)	13(38.2)	2(5.9)	
	전문직	4(10.8)	17(45.9)	14(37.8)	2(5.4)	
	공무원	3(15.0)	6(30.0)	11(55.0)		
	기타	3(6.3)	23(47.9)	20(41.7)	2(4.2)	
전체		26(11.2)	113(48.7)	85(36.6)	8(3.4)	

*p<.05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11>과 같다.

교육효과 상승이 이유라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48.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36.6%였고, 권리이며 의무이거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이유로 내세운 경우는 전체의 약 15%에 불과해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남구, 노원구 및 서초구 거주 학부모들이 교육효과 상승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응답한 비율이 타 지역보다 소폭이지만 높았고, 고졸자가 상위학력자보다 높았다. 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응답한 비율은 변인 군별 모두 매우 낮았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력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불필요한 이유

<표12>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불필요 이유 (%)

구분	배경변인	학교자율성 존중	교사교육활 동침해	관심부족	방법효과 모름	
연령	30대	2(25.0)	2(25.0)	1(12.5)	3(37.5)	$\chi^2=4.970$ df=6
	40대	28(37.8)	13(17.6)	15(20.3)	18(24.3)	
	50대 이상			1(33.3)	2(66.7)	
거주 지역	강북구	2(66.7)	1(33.3)			$\chi^2=9.715$ df=12
	강남구	4(57.1)	1(14.3)	1(14.3)	1(14.3)	
	노원구	16(31.4)	8(15.7)	14(27.5)	13(25.5)	
	도봉구	5(29.4)	4(23.5)	1(5.9)	7(41.2)	
	서초구	3(42.9)	1(14.3)	1(14.3)	2(28.6)	
학력	고졸	10(33.3)	6(20.0)	6(20.0)	8(26.7)	$\chi^2=1.981$ df=6
	전문대졸	8(47.1)	3(17.6)	2(11.8)	4(23.5)	
	대졸이상	12(31.6)	6(15.8)	9(23.7)	11(28.9)	
직업	회사원	9(40.9)	5(22.7)	2(9.1)	6(27.3)	$\chi^2=19.453$ df=15
	생산직	3(30.0)	1(10.0)	6(60.0)		
	판매 서비스업	7(50.0)	2(14.3)	2(14.3)	3(21.4)	
	전문직	3(21.4)	3(21.4)	3(21.4)	5(35.7)	
	공무원	3(60.0)	1(20.0)		1(20.0)	
	기타	5(25.0)	3(15.0)	4(20.0)	8(40.0)	
전체		30(35.3)	15(17.6)	17(20.0)	23(27.1)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50% 이상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거나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참여의 방법과 효과를 잘 모른다는 응답

은 27%이고 20%는 관심이 없다고 답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 재학 학교 학부모 학교경영참여 인식 정도

<표13> 자녀 재학 학교 학부모 학교경영참여 인식 정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6(30.0)	8(40.0)	6(30.0)		$x^2=4.538$ df=8
	40대	6(2.3)	68(26.5)	137(53.3)	44(17.1)	2(.8)	
	50대 이상		1(11.1)	6(66.7)	2(22.2)		
거주 지역	강북구		3(30.0)	5(50.0)	2(20.0)		$x^2=20.337$ df=16
	강남구		4(26.7)	11(73.3)			
	노원구	4(2.3)	25(25.4)	97(54.8)	31(17.5)		
	도봉구	2(3.8)	11(20.8)	23(43.4)	16(30.2)	1(1.9)	
	서초구		12(38.7)	15(48.4)	3(9.7)	1(3.2)	
학력	고졸	3(3.8)	16(20.5)	43(55.1)	16(20.5)		$x^2=5.049$ df=8
	전문대졸	1(2.3)	12(27.3)	23(52.3)	8(18.3)		
	대졸이상	2(1.2)	47(26.2)	85(51.8)	28(17.1)	2(1.2)	
직업	회사원	3(3.1)	27(27.6)	47(48.0)	20(20.4)	1(1.0)	$x^2=19.189$ df=20
	생산직		3(18.8)	8(50.0)	5(31.3)		
	판매 서비스업	3(7.1)	10(23.8)	23(54.8)	5(11.9)	1(2.4)	
	전문직		16(34.8)	24(52.2)	6(13.0)		
	공무원		6(25.0)	12(50.0)	6(25.0)		
	기타		13(21.7)	37(61.7)	10(16.7)		
전체		6(2.1)	75(26.2)	151(52.8)	52(18.3)	2(.7)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전체의 30%에 미달되어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도봉구 거주자와 도봉구 거주자 및 생산직 종사자인 긍정적 응답비율이 다른 변인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서초구 거주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긍정적 인식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인별 응답비율을 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강남지역보다는 강북지역 거주자,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높았고, 직업군별로는 공무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았다.

5) 학운위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 정도

<표14> 학운위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5(25.0)	11(55.0)	3(15.0)	1(5.0)	$\chi^2=4.223$ df=8
	40대	6(2.3)	71(27.2)	138(52.9)	44(16.9)	2(.8)	
	50대 이상		3(30.0)	5(50.0)	2(20.0)		
거주 지역	강북구		2(18.2)	6(54.5)	3(27.3)		$\chi^2=24.552$ df=16
	강남구	1(6.7)	2(13.3)	11(73.8)	1(6.7)		
	노원구	3(1.7)	55(30.7)	95(53.1)	26(14.5)		
	도봉구	1(1.8)	10(18.2)	28(50.9)	13(23.6)	3(5.5)	
	서초구	1(3.2)	10(32.3)	14(45.2)	6(19.4)		
학력	고졸	1(1.3)	17(21.8)	45(57.7)	15(19.2)		$\chi^2=6.584$ df=8
	전문대졸	2(4.5)	14(31.8)	23(52.3)	5(11.4)		
	대졸이상	3(1.8)	48(28.4)	86(52.9)	49(16.8)	3(1.8)	
직업	회사원	4(4.0)	30(30.0)	53(53.0)	13(13.0)		$\chi^2=15.948$ df=20
	생산직		5(31.3)	10(62.5)	1(6.3)		
	판매 서비스업	1(2.3)	13(30.2)	23(53.5)	5(11.6)	1(2.3)	
	전문직		11(23.4)	25(53.2)	10(21.3)	1(2.1)	
	공무원		3(13.0)	13(56.5)	7(30.4)		
	기타	1(1.6)	17(27.4)	30(48.4)	13(21.0)	1(1.6)	
	전체	6(2.1)	79(27.1)	154(52.9)	49(16.8)	3(1.0)	

*p<.05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30%에 미달하고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70% 정도가 나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는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노원구 및 서

초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강북구와 도봉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 비해 부정적 반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직업군로는 회사원과 판매·서비스업 및 생산직군에서 긍정적 반응 비율이 부정적 반응 비율보다 높았으나 전문직과 공무원직군에서는 부정적 반응 비율이 더 높았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거주지역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6) 학운위 산하단체의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정도

<표15> 학운위 산하단체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기여 인식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2(10.5)	5(26.3)	6(31.6)	6(31.6)		$\chi^2=5.695$ df=8
	40대	12(4.6)	67(25.6)	132(50.4)	48(18.3)	3(1.1)	
	50대 이상		2(20.0)	5(40.0)	3(30.0)		
거주 지역	강북구	1(9.1)	3(27.3)	6(54.5)	1(9.1)		$\chi^2=15.758$ df=16
	강남구		5(33.3)	9(60.0)	1(6.7)		
	노원구	6(3.4)	51(28.7)	86(48.3)	34(19.1)	1(.6)	
	도봉구	5(9.1)	9(16.4)	24(43.6)	16(29.1)	1(1.8)	
	서초구	2(6.3)	6(18.8)	18(56.3)	5(15.6)	1(3.1)	
학력	고졸	3(3.8)	17(21.8)	38(48.7)	20(25.6)		$\chi^2=5.390$ df=8
	전문대졸	3(6.5)	12(26.1)	22(47.8)	9(19.6)		
	대졸이상	8(4.8)	45(26.9)	83(49.7)	28(16.8)	3(1.8)	
직업	회사원	8(7.9)	32(31.7)	44(43.6)	17(16.8)		$\chi^2=19.768$ df=20
	생산직		1(6.3)	10(62.5)	5(31.3)		
	판매 서비스업	2(4.7)	9(20.9)	22(51.2)	9(20.9)	1(2.3)	
	전문직	1(2.2)	12(26.1)	26(56.5)	6(13.0)	1(2.2)	
	공무원		4(17.4)	15(65.2)	4(17.4)		
	기타	3(4.8)	16(25.8)	26(41.9)	16(25.8)	1(1.6)	
	전체	14(4.8)	74(25.4)	143(49.1)	57(19.1)	3(1.0)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15>와 같다. 별인별로 연령별로 30대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적고 부정적인 인식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직업군별로는 회사원과 생산직 및 판매·서비스업군이 다른 직종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높고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았다.

7)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이유

<표16>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이유 (%)

구분	배경변인	자녀에게 혜택기대	학교에 봉사	학교교육 발전	학교의 요구	기타	
연령	30대	5(25.0)		11(55.0)	4(20.0)		$\chi^2=9.864$ df=8
	40대	72(27.4)	16(6.1)	150(57.0)	15(5.7)	10(3.8)	
	50대 이상	3(30.0)		7(70.0)			
거주 지역	강북구	3(27.3)		6(54.5)	1(9.1)	1(9.1)	$\chi^2=21.598$ df=16
	강남구	6(40.0)		9(60.0)			
	노원구	38(21.2)	11(6.1)	115(64.2)	10(5.6)	5(2.8)	
	도봉구	21(37.5)	2(3.6)	24(42.9)	7(12.5)	2(3.6)	
	서초구	12(37.5)	3(9.4)	14(43.8)	1(3.1)	2(6.3)	
학력	고졸	23(29.5)	2(2.6)	46(59.0)	6(7.7)	1(1.3)	$\chi^2=5.272$ df=8
	전문대졸	13(27.7)	4(8.5)	25(53.2)	2(4.3)	3(6.4)	
	대졸이상	44(26.2)	10(6.0)	97(57.7)	11(6.5)	6(3.6)	
직업	회사원	29(28.7)	3(3.0)	59(58.4)	7(6.9)	3(3.0)	$\chi^2=14.777$ df=20
	생산직	7(43.8)		7(43.8)	2(12.5)		
	판매 서비스업	12(27.3)	2(4.5)	28(63.6)	1(2.3)	1(2.3)	
	전문직	15(31.9)	3(6.4)	23(48.9)	4(8.5)	2(4.3)	
	공무원	3(13.0)	2(8.7)	16(69.6)	1(4.3)	1(4.3)	
	기타	14(22.6)	6(9.7)	35(56.5)	5(6.5)	3(4.8)	
전체		80(27.3)	16(5.5)	168(57.3)	19(6.5)	10(3.4)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대해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혜택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는 학교에 대한 봉사 및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강남구 및 노원구 거주자가 학교에 대한 봉사와 학교교육의 발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체 6.5%에 불과해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

<표17>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 (%)

구분	배경변인	시간부족	자녀성적 부진	참여방법 모름	경제적 부담	기타	
연령	30대	8(40.0)	3(15.0)	2(10.0)	6(30.0)	1(5.0)	$x^2=9.906$ df=8
	40대	94(36.6)	30(11.7)	79(30.7)	44(17.1)	10(3.9)	
	50대 이상	6(60.0)		4(50.00)			
거주 지역	강북구	5(45.5)	1(9.1)	4(36.4)		1(9.1)	$x^2=23.421$ df=16
	강남구	7(46.7)	2(13.3)	3(20.0)	2(13.3)	1(6.7)	
	노원구	60(34.3)	20(11.4)	61(34.9)	30(17.1)	4(2.3)	
	도봉구	25(46.3)	8(14.8)	11(20.4)	6(11.1)	4(7.4)	
	서초구	11(34.4)	2(6.3)	6(18.8)	12(37.5)	1(3.1)	
학력	고졸	38(49.4)	9(11.7)	14(18.2)	15(19.5)	1(1.3)	$*x^2=15.363$ df=8
	전문대졸	15(34.1)	6(13.6)	13(29.5)	10(22.7)		
	대졸이상	55(33.1)	18(10.8)	58(34.9)	25(15.1)	10(6.0)	
직업	회사원	33(33.0)	10(10.0)	28(28.0)	23(23.0)	6(6.0)	$x^2=25.431^a$ df=20
	생산직	8(50.0)	5(31.3)	2(12.5)	1(6.3)		
	판매 서비스업	19(45.2)	4(9.5)	9(21.4)	8(19.0)	2(4.8)	
	전문직	18(38.3)	4(8.5)	17(36.2)	6(12.8)	2(4.3)	
	공무원	11(50.0)		7(31.8)	4(18.3)		
	기타	19(31.7)	10(16.7)	22(36.7)	8(13.3)	1(1.7)	
	전체	108(37.6)	33(11.5)	85(29.6)	50(17.4)	11(3.8)	

*p<.05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17>과 같다. 시간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7.6%로 학부모들이 학교경영 참여에 적지 않은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참여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30%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에서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성적부진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1.5%에 불과해 자녀의 성적이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8% 가까이 되어 학교경영 참여를 금전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력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9) 자녀 재학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경험

<표18> 자녀 재학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경험 (%)

구분	배경변인	있다	없다	
연령	30대	2(10.5)	15(78.9)	$*x^2=13.549$ df=4
	40대	102(42.7)	131(54.8)	
	50대 이상	3(30.0)	7(70.0)	
거주지역	강북구	4(36.4)	6(54.5)	$**x^2=31.540$ df=8
	강남구		14(100.0)	
	노원구	84(50.6)	77(46.4)	
	도봉구	11(22.9)	35(72.9)	
	서초구	8(27.6)	21(72.4)	
학력	고졸	22(31.4)	44(62.9)	$x^2=7.269$ df=6
	전문대졸	18(41.9)	23(53.5)	
	대졸이상	67(43.2)	86(55.5)	
직업	회사원	44(46.3)	47(49.5)	$x^2=11.953$ df=15
	생산직	3(27.3)	7(63.6)	
	판매 서비스업	11(28.9)	25(65.8)	
	전문직	16(37.2)	26(60.5)	
	공무원	9(37.5)	15(62.5)	
	기타	24(42.1)	33(57.9)	
전체		107(39.9)	153(57.1)	

* $p<.05$, ** $p<.01$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40% 정도로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 57.1%에 비해 비교적 비율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참여경험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노원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강남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지역보다 참여 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경험이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은 다른 업종군에 비해 참여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연령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거주지역 변인에서는 $p<.01$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0) 학부모의 자녀 재학 중인 학교 학교경영 참여 영역

<표19> 학부모의 자녀 재학 학교의 학교경영 참여 영역 (%)

구분	배경변인	학습지도	자원봉사	학교행사 참관	경영자문 정책결정	학교지원	성인학습	
연령	30대	2(33.3)	4(66.7)					$\chi^2=7.102$ df=10
	40대	25(19.7)	51(40.2)	32(25.2)	10(7.9)	8(6.3)	1(8)	
	50대 이상		1(33.3)	2(66.7)				
거주지역	강북구		4(80.0)	1(20.0)				$\chi^2=17.088$ df=20
	강남구	1(50.0)	1(50.0)					
	노원구	20(20.0)	39(39.0)	27(27.0)	6(6.0)	7(7.0)	1(1.0)	
	도봉구	5(27.8)	5(27.8)	3(16.7)	4(22.2)	1(5.6)		
	서초구	1(9.1)	7(63.6)	3(27.3)				
학력	고졸	3(9.7)	17(54.8)	3(9.7)	4(12.9)	4(12.9)		$\chi^2=21.537$ df=10
	전문대졸	3(11.5)	11(42.3)	10(38.5)	1(3.8)		1(3.8)	
	대졸이상	21(26.6)	28(35.4)	21(26.6)	5(6.3)	4(5.1)		
직업	회사원	9(17.0)	22(41.5)	11(20.8)	5(9.4)	5(9.4)	1(1.9)	$\chi^2=22.416$ df=25
	생산직	3(37.5)	2(25.0)	1(12.5)	1(12.5)	1(12.5)		
	판매 서비스업	3(16.7)	11(61.1)	3(16.7)	1(5.6)			
	전문직	6(33.3)	5(27.8)	6(33.3)	1(5.6)			
	공무원		7(70.0)	2(20.0)	1(10.0)			
	기타	6(20.7)	9(31.0)	11(37.9)	1(3.4)	2(6.9)		
전체		27(19.9)	56(41.2)	34(25.0)	10(7.4)	8(5.9)	1(7)	

*p<.05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19>와 같았다.

대체로 자원봉사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56%로서 높았고 경영자문과 정책결정에 참여경험 비율은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직업별로 생산직과 전

문직에서 다른 직업군보다 학습지도에 참여경험 비율이 타 직종보다 현저하게 높은 편이었고, 학력변인에서 $p<.05$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3. 학교경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방안

1) 학교경영의 전반적 정보 공개 필요성 인식정도

<표20> 학교경영 전반적 정보 공개 필요성 인식정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3(15.0)	8(40.0)	8(40.0)			$\chi^2=10.150$ df=10
	40대	46(17.6)	152(58.2)	50(19.2)	10(3.8)	2(.8)	
	50대 이상	4(40.0)	4(40.0)	1(10.0)	1(10.0)		
거주 지역	강북구	3(27.3)	5(45.5)	2(18.2)			$***\chi^2=60.761$ df=20
	강남구	1(7.1)	3(21.4)	6(42.9)	4(28.6)		
	노원구	31(17.4)	105(59.0)	34(19.1)	6(3.4)	2(1.1)	
	도봉구	12(21.4)	31(55.4)	13(23.2)			
	서초구	6(18.8)	20(62.5)	4(12.5)	2(6.3)		
학력	고졸	12(15.4)	44(56.4)	20(25.6)	2(2.6)		$\chi^2=16.294$ df=10
	전문대졸	3(6.4)	31(66.0)	9(19.1)	2(4.3)	2(4.2)	
	대졸이상	38(18.2)	89(53.6)	30(18.1)	8(4.8)	1(.6)	
직업	회사원	14(14.0)	61(61.0)	21(21.0)	2(2.0)	2(2.0)	$\chi^2=25.264$ df=25
	생산직	4(25.0)	8(50.0)	3(18.8)	1(6.3)		
	판매 서비스업	8(18.2)	21(47.7)	13(29.5)	1(2.3)		
	전문직	10(21.3)	27(57.4)	7(14.9)	3(6.4)		
	공무원	6(26.1)	16(69.6)	1(4.3)			
	기타	11(18.0)	31(50.8)	14(23.0)	5(8.2)		
	전체	53(18.2)	164(56.4)	59(20.3)	12(4.1)	2(.7)	

$***p<.001$

현재 재학 중인 자녀학교의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0>과 같다.

학부모들은 전체의 74% 정도가 학교경영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을 해 이로 미뤄보면 현재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노원구와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정보 공개 필요성을 타 지역거주 학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인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들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 보면 거주지역 변인에서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2)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필요성 인식정도

<표21> 교육과정·교육계획 수립과정 학부모 참여 필요성 인식 정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3(15.0)	7(35.0)	7(25.0)	3(15.0)		$\chi^2=8.702$ df=8
	40대	28(10.6)	120(45.6)	81(30.0)	31(11.8)	3(1.1)	
	50대 이상		3(30.0)	7(70.0)			
거주 지역	강북구	3(27.3)	3(27.3)	5(45.5)			$\chi^2=60.761$ df=20
	강남구	1(7.1)	4(28.64)	8(57.1)	1(7.1)		
	노원구	19(10.6)	87(48.3)	50(27.8)	22(12.2)	2(1.1)	
	도봉구	3(5.4)	23(41.1)	21(37.5)	8(14.3)	1(1.8)	
	서초구	5(15.6)	13(40.6)	11(34.4)	3(9.4)		
학력	고졸	7(9.0)	26(33.3)	31(39.7)	13(16.7)	1(1.3)	$\chi^2=9.067$ df=8
	전문대졸	4(8.3)	25(52.1)	13(27.1)	6(12.5)		
	대졸이상	20(12.0)	79(47.3)	51(30.5)	15(9.0)	2(1.2)	
직업	회사원	16(15.8)	44(43.6)	34(33.7)	7(6.9)		$\chi^2=19.207$ df=20
	생산직	1(6.3)	6(37.5)	4(25.0)	4(25.0)	1(6.3)	
	판매 서비스업	3(6.8)	19(43.2)	14(31.8)	7(15.9)	1(2.3)	
	전문직	5(10.6)	22(46.8)	14(29.8)	5(10.6)	1(2.1)	
	공무원	3(13.0)	10(43.5)	7(30.4)	3(13.0)		
	기타	3(4.6)	29(46.8)	22(35.5)	8(12.9)		
전체		31(10.6)	130(44.4)	95(32.4)	34(11.6)	3(1.0)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의 수립 및 시행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외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단계에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표21>과 같이 50% 이상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 정도로 학부모들은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참여 필요성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지역별로 강남구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필요성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력이 보다 높은 계층과 생사진과 판매·서비스 종사자보다는 회사원 및 전문직과 공무원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의 참여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장선출제, 담임 등 인사영역에 학부모 참여 필요 인식도

<표22> 인사영역 학부모 참여 필요 인식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2(10.0)	5(25.0)	6(30.0)	6(30.0)	1(5.0)	$\chi^2=4.521$ df=8
	40대	16(6.2)	78(30.1)	75(29.1)	85(32.8)	5(1.9)	
	50대 이상	2(20.0)	3(30.0)	2(20.0)	3(30.0)		
거주지역	강북구	1(9.1)	4(26.4)	5(45.5)			$\chi^2=36.967$ df=16
	강남구	1(7.1)	1(7.1)	6(42.9)	6(42.9)		
	노원구	15(8.4)	62(34.8)	39(21.9)	60(33.7)	2(1.1)	
	도봉구	1(1.8)	10(18.2)	27(49.1)	14(25.5)	3(5.5)	
	서초구	2(6.5)	9(29.0)	6(19.4)	14(45.2)		
학력	고졸	5(6.6)	22(28.9)	21(27.6)	25(32.9)	3(3.9)	$\chi^2=3.500$ df=8
	전문대졸	4(8.3)	12(25.0)	16(33.3)	16(33.3)		
	대졸이상	11(6.7)	52(31.5)	46(27.9)	53(32.1)	3(1.8)	
직업	회사원	8(7.9)	31(30.7)	30(29.7)	32(31.7)		$\chi^2=9.945$ df=20
	생산직	2(12.5)	3(18.8)	5(31.3)	6(37.5)		
	판매서비스업	2(4.7)	13(30.2)	11(25.6)	15(34.9)	2(4.7)	
	전문직	3(6.5)	16(34.8)	11(23.9)	14(30.4)	2(4.3)	
	공무원	1(4.5)	7(31.8)	6(27.3)	8(36.4)		
	기타	4(6.6)	16(26.2)	20(32.8)	19(31.1)		
	전체	20(6.9)	86(29.8)	83(28.7)	94(32.5)	6(2.1)	

$\chi^2 < .01$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및 행·재정 등 학교경영의 제반영역을 포함, 학교장 선출보직제가 시행될 경우 그 선출과정과 담임 등의 교사보직 결정과정 등 인사영역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응답 결과는

<표22>와 같다.

인사영역에 학부모 참여 필요 인식 정도는 전체로는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36%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비율이 34%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정도로 학부모 대부분이 학부모들의 학교 인사영역 참여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역별로는 노원구 거주 학부모들의 필요성 인식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은 반면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비율이 ‘그렇다’라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거주지역변인에서 $p<.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개선 필요에 대한 인식

<표23> 학교운영위원회제도 개선 필요 인식도 (%)

구분	배경변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연령	30대	5(25.0)	3(15.0)	9(45.0)	3(15.0)		$\chi^2=8.486$ df=6
	40대	25(9.7)	103(39.9)	104(40.3)	26(10.1)		
	50대 이상	2(20.0)	4(40.0)	3(30.0)	1(10.0)		
거주 지역	강북구	1(10.0)	6(60.0)	4(30.0)			$\chi^2=11.641$ df=12
	강남구	1(7.1)	2(14.3)	8(57.1)	3(21.4)		
	노원구	21(11.9)	68(38.4)	69(39.0)	19(10.7)		
	도봉구	5(8.9)	24(42.9)	20(35.7)	7(12.5)		
	서초구	4(12.9)	10(32.3)	16(51.6)	1(3.2)		
학력	고졸	14(18.4)	24(31.6)	28(36.8)	10(13.2)		$\chi^2=10.022$ df=6
	전문대졸	2(4.3)	18(39.1)	19(41.3)	7(15.2)		
	대졸이상	16(9.6)	110(38.2)	116(40.3)	30(10.4)		
직업	회사원	9(9.1)	41(41.4)	40(40.4)	9(9.1)		$\chi^2=15.792$ df=15
	생산직	3(18.8)	7(43.8)	3(18.8)	3(18.8)		
	판매 서비스업	6(14.3)	15(35.7)	15(35.7)	6(14.3)		
	전문직	8(17.0)	18(38.3)	16(34.0)	5(10.6)		
	공무원	4(17.4)	6(26.1)	12(52.2)	1(4.3)		
	기타	2(3.3)	23(37.7)	30(49.2)	6(9.8)		
전체		32(11.1)	110(38.2)	116(40.3)	30(10.4)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23>과 같은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49%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10% 정도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정도가 되어 유보적인 답변 태도를 보인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지만, 학력으로는 고졸자에서

높게 나왔다. 거주지별로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매우 높게 나왔는데 강남 지역 거주자는 각 종 변인군 중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들이 필요성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편이었다.

5)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우선 개선 사항

<표24> 학교운영위원회제도 우선 개선 사항 (%)

구분	배경변인	전영역심의 의결권부여	행정영역만 의결권	학부모참여 확대	지역사회참 여기회확대	
연령	30대	7(36.8)	3(15.8)	7(36.8)	2(10.5)	$\chi^2=7.099$ df=6
	40대	51(21.3)	42(17.6)	112(46.9)	34(1.2)	
	50대 이상	5(50.0)	2(20.0)	2(20.0)	1(10.0)	
거주 지역	강북구	3(33.3)	1(11.1)	5(55.6)		$\chi^2=13.998$ df=12
	강남구	1(7.7)	2(15.4)	9(69.2)	1(7.7)	
	노원구	32(19.9)	31(19.3)	74(46.0)	24(14.9)	
	도봉구	16(29.1)	10(18.2)	19(34.5)	10(18.2)	
	서초구	11(36.7)	3(10.0)	14(46.7)	2(6.7)	
학력	고졸	20(28.6)	9(12.9)	29(41.4)	12(17.1)	$\chi^2=6.091$ df=6
	전문대졸	8(19.0)	5(11.9)	22(52.4)	7(16.7)	
	대졸이상	35(22.4)	33(21.2)	70(44.9)	18(11.5)	
직업	회사원	18(19.6)	18(19.6)	41(44.6)	15(16.3)	$\chi^2=10.827$ df=15
	생산직	5(31.3)	1(6.3)	7(43.8)	3(18.8)	
	판매 서비스업	11(27.5)	5(12.5)	19(47.5)	5(12.5)	
	전문직	12(27.9)	11(25.6)	14(32.6)	6(14.0)	
	공무원	4(18.2)	3(13.6)	11(50.0)	4(18.2)	
	기타	13(23.6)	9(16.4)	29(52.7)	4(7.3)	
전체		63(23.5)	47(17.5)	121(45.1)	37(13.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의 45%가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선택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높았으며 거주지역 별로는 도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군별로는 공무원 학부모들이 참여 기회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외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관련 학교경영 전 영역에 대한 영역에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 선택한 비율이 행정영역에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에 선택한 비율보다 6% 이상 높아,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추론하면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적 권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6) 학교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경영의 선결 조건

<표25> 학교경영 확대 위한 학교경영 선결 조건 (%)

구분	배경변인	제도개선	투명경영	교사열의	학부모조건 전참여	참여수용 보상	기타	
연령	30대	3(15.8)	3(15.8)	7(36.8)	6(31.6)			$x^2=13.037$ df=10
	40대	61(24.0)	54(21.3)	57(22.4)	73(28.7)	6(2.4)	3(1.2)	
	50대 이상	5(50.0)	1(10.0)	1(10.0)	2(20.0)		1(10.0)	
거주지역	강북구	1(10.0)	2(20.0)	3(30.0)	2(20.0)	1(10.0)	1(10.0)	$x^2=22.755$ df=20
	강남구	2(14.3)	3(21.4)	2(14.3)	7(50.0)			
	노원구	40(23.3)	35(20.3)	43(25.0)	50(29.1)	2(1.2)	2(1.2)	
	도봉구	15(27.3)	9(16.4)	12(21.8)	15(27.3)	3(5.5)	1(1.8)	
	서초구	11(34.4)	9(28.1)	5(15.6)	7(21.9)			
학력	고졸	10(13.5)	15(20.3)	21(28.4)	25(33.8)	3(4.1)		$x^2=16.137$ df=10
	전문대졸	11(24.4)	6(13.3)	15(33.3)	11(24.4)	1(2.2)	1(2.2)	
	대졸이상	48(29.3)	37(22.6)	29(17.7)	45(27.4)	2(1.2)	3(1.8)	
직업	회사원	22(21.8)	18(17.8)	24(23.8)	35(34.7)		2(2.0)	$x^2=31.451$ df=25
	생산직	1(6.3)	6(37.5)	4(25.0)	4(25.0)	1(6.3)		
	판매 서비스업	9(21.4)	8(19.0)	12(28.6)	11(26.2)	1(2.4)	1(2.4)	
	전문직	16(35.6)	9(20.0)	9(20.0)	10(22.2)		1(2.2)	
	공무원	3(13.6)	9(40.9)	3(13.6)	5(22.7)	2(9.1)		
	기타	18(31.6)	8(14.0)	13(22.8)	16(28.1)	2(3.5)		
	전체	69(24.4)	58(20.5)	65(23.0)	81(28.6)	6(2.1)	4(1.4)	

학교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경영의 선결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욕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8%로 제일 많았고, 학교경영 참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4% 정도로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개선에는 교사의 열의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3%의 비율이었는데,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욕구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더불어 연령이 젊을수록 고졸학력의 학부모들이 다른 변인군보다 비교적 선택비율이 높았다. 학교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24%에 달해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제도상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직업별로는 전문직 이상에서 다른 변인별군에서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교장의 투명한 학교경영을 선택한 학부모도 20%에 이르렀는데 생산직군에서 37%, 공무원군에서 40%에 달해 다른 변인군보다 학교경영의 투명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학교경영 활동 참여 선호 영역

<표26> 학교경영 활동 참여 선호 영역 (%)

구분	배경변인	학습지도	자원봉사	학교행사 참관	자문정책 결정	학교지원	기타	
연령	30대		13(68.4)	5(26.3)	1(5.3)			* $\chi^2=17.743$ df=10
	40대	40(15.9)	104(41.4)	38(15.1)	35(13.9)	20(8.0)	14(5.6)	
	50대 이상	4(40.0)	3(30.0)	2(20.0)			1(10.0)	
거주지역	강북구		6(60.0)	2(20.0)	2(20.0)			*** $\chi^2=53.262$ df=20
	강남구		10(71.4)	1(7.1)			3(21.4)	
	노원구	32(18.5)	74(42.8)	27(15.6)	16(9.2)	16(9.2)	8(4.6)	
	도봉구	10(18.9)	11(20.8)	11(20.8)	17(32.1)	2(3.8)	2(3.8)	
	서초구	2(6.7)	19(63.3)	4(13.3)	1(3.3)	2(6.7)	2(6.7)	
학력	고졸	12(16.2)	29(39.2)	12(16.2)	11(14.9)	9(12.2)	1(1.4)	$\chi^2=15.873$ df=10
	전문대졸	3(6.7)	23(51.1)	11(24.4)	3(6.7)	1(2.2)	4(8.9)	
	대졸이상	29(18.0)	68(42.2)	22(13.7)	22(13.7)	10(6.2)	10(6.2)	
직업	회사원	12(12.1)	42(42.4)	11(11.1)	20(20.2)	9(9.1)	5(5.1)	$\chi^2=30.366$ df=25
	생산직	5(31.3)	5(31.3)	2(12.5)	1(6.3)	2(12.5)	1(6.3)	
	판매 서비스업	5(11.9)	21(50.0)	8(19.0)	4(5)	2(4.8)	2(4.8)	
	전문직	10(21.7)	16(34.8)	13(28.3)	1(2.2)	4(8.7)	2(4.3)	
	공무원	1(4.3)	14(60.9)	2(8.7)	3(13.0)	1(4.3)	2(8.7)	
	기타	11(20.4)	22(40.7)	9(16.7)	7(13.0)	2(3.7)	3(5.6)	
	전체	44(15.7)	120(42.9)	45(16.1)	36(12.9)	20(7.1)	15(5.4)	

*p<.05, ***p<.001

앞으로 학교경영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느 활동 영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표26>과 같이 전체 학부모의 42.9%가 급식활동 봉사, 교외생활 지도, 현장학습보조 및 독서지도 등 자원봉사를 원한다고 선택하였다. 자원봉사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고 거주지역별로는 강남지역 거주자가 강북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연령

별 변인에서 $p<.05$ 수준에서의 유의도를 보였고 거주지역별 변인에서는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8)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표27>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효과적 방법 (%)

구분	배경변인	학교방문	교사의 요청	전화 서신	공식석상	기타	
연령	30대	4(20.0)	2(10.0)	6(30.0)	8(40.0)		$x^2=7.536$ df=8
	40대	88(34.5)	34(13.3)	64(25.1)	64(25.1)	2(2.0)	
	50대 이상	5(50.0)		4(40.0)	1(10.0)		
거주 지역	강북구	5(50.0)		3(30.0)	1(10.0)	1(10.0)	$x^2=15.538$ df=16
	강남구	5(33.3)	3(20.0)	3(20.0)	4(26.7)		
	노원구	59(33.9)	23(13.2)	45(25.9)	45(25.9)	2(1.1)	
	도봉구	18(32.7)	3(5.5)	16(29.1)	16(29.1)	2(3.6)	
	서초구	10(32.3)	7(22.6)	7(22.6)	7(22.6)		
학력	고졸	28(36.4)	4(5.2)	19(24.7)	25(32.5)	1(1.3)	$x^2=19.584$ df=8
	전문대졸	14(30.4)	14(30.4)	10(21.7)	7(15.2)	1(2.2)	
	대졸이상	55(34.0)	18(11.1)	45(27.8)	41(25.3)	3(1.9)	
직업	회사원	30(30.0)	12(12.0)	29(29.0)	25(25.0)	4(4.0)	$x^2=8.951$ df=20
	생산직	5(31.3)	2(12.5)	4(25.0)	5(31.3)		
	판매 서비스업	15(34.9)	6(14.0)	10(23.3)	12(27.9)		
	전문직	18(40.0)	4(8.9)	10(22.2)	13(28.9)		
	공무원	9(37.5)	3(12.5)	6(25.0)	6(25.0)		
	기타	20(35.1)	9(15.8)	15(26.3)	12(21.1)	1(1.8)	
전체		97(34.0)	36(12.6)	74(26.0)	73(25.6)	5(1.8)	

학부모 개인적으로 학교경영 참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학부모 중 참여 필요시 학교방문이 34%를 선택하였고, 전화나 서신으로 언제나 26%, 학부모회 같은 공식석상이 25.6%를 선택, 교

사의 요청 시를 선택한 12%보다 많아 학부모 개인적으로는 학교경영 참여 방법에 대해 공적인 범위 내에서, 매우 적극적인 접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방문을 선택한 비율은 연령 변인을 제외하고 전 변인군별 대체로 높은 선택비율을 보였는데 40대 연령층과 전문직 및 공무원 변인군에서 다른 변인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회 같은 공식석상을 선택한 경우는 30대와 고졸자가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 학교경영 참여 방법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9) 학교경영 참여 요구받을 경우 반응

<표28> 학교경영 참여 요구받을 경우 반응 (%)

구분	배경변인	참여 어렵다	사정에 따라협조	되도록 협조	반드시 협조	기타	
연령	30대		7(35.0)	12(60.0)	1(5.0)		$\chi^2=4.134$ df=8
	40대	14(5.5)	111(43.4)	111(43.4)	16(6.3)	4(1.6)	
	50대 이상	1(10.0)	3(30.0)	5(50.0)	1(10.0)		
거주 지역	강북구		5(50.0)	4(40.0)		1(10.0)	$\chi^2=18.687$ df=16
	강남구	1(6.7)	9(60.0)	5(33.3)			
	노원구	8(4.6)	68(38.9)	84(48.0)	14(8.0)	1(.6)	
	도봉구	4(7.3)	21(38.1)	25(45.5)	3(5.5)	1(3.6)	
	서초구	2(6.5)	18(58.1)	10(32.3)	1(3.2)		
학력	고졸	3(3.9)	38(49.4)	32(41.6)	2(2.6)	2(2.6)	$\chi^2=6.135$ df=8
	전문대졸	2(4.3)	20(43.5)	21(45.7)	3(6.5)		
	대졸이상	10(6.1)	63(38.7)	75(46.0)	13(6.3)	2(1.4)	
직업	회사원	8(8.0)	39(39.0)	44(44.0)	7(7.0)	2(2.0)	$\chi^2=12.976$ df=20
	생산직		9(56.3)	6(37.5)	1(6.3)		
	판매 서비스업	2(4.7)	19(44.2)	19(44.2)	3(7.0)		
	전문직	3(6.5)	20(43.5)	17(37.0)	5(10.9)	1(2.2)	
	공무원		12(50.0)	11(45.8)	1(4.2)		
	기타	2(3.5)	22(38.6)	31(54.4)	1(1.8)	1(1.8)	
전체		15(5.2)	121(42.3)	128(44.8)	18(6.3)	4(1.4)	

앞으로 학교경영에 참여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2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도록 협조’와 ‘반드시 협조’를 선택한 비율이 51%에 달하고 ‘참여가 어렵다’는 학부모는 5%여서 과반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변인별로 보면 30대와 노원구 거주자, 학력이 높은 경우 및 회사원과 판매·서비스업 변인군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협조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나왔

지만 강남지역 거주자들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강남지역 거주자 변인군은 작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협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정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강남지역 거주자와 고졸자 및 생산직과 공무원변인에서 다른 변인군보다 비율이 높았고 30대와 강북지역 거주자, 대졸자와 회사원 변인은 응답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V. 要約, 結論 및 提言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 목적에 의해 제시된 연구과정 및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렸다.

1. 요약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경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본 결과, 전체집단의 응답비율을 보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및 ‘보통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70%를 넘었다.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교육정책을 실제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9.3%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육자치제 아래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가적 교육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8%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교육환경의 미비’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로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72.0% 정도가 나왔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경영 현황은 응답자의 11%정도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안내 인식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그렇다’는 응답은 30%에 미달하고 미흡하다는 인식이 70%가 넘었다.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인식 및 실태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80%가 넘는 학부모들이 매우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교육효과 상승이 이유라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48.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36.6%였고, 권리이며 의무이거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이유로 내세운 경우는 전체의 약 15%에 불과해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50% 이상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거나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참여의 방법과 효과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27%이고 20%는 관심이 없다고 답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전체의 30%에 미달되어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30%에 미달하고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70% 정도가 나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에 그다지 기여하고 있는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30% 정도만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대해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자녀에게 혜택을 기대한다는 응답보다는 학교에 대한 봉사 및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 결과, 시간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7.6%로 학부모들이 학교경영 참여에 적지 않은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참여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30%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 외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8% 가까이 되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에 대해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40% 정도로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 57.1%에 비해 비교적 비율이 낮았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 대체로 자원봉사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56%로서 높았고 경영자문과 정책결정에 참여경험 비율은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3) 학교경영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방안

현재 재학 중인 자녀학교의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물음에, 학부모들은 전체의 74% 정도가 학교경영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의 수립 및 시행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외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단계에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50% 이상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 정도로 학부모들은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및 행·재정 등 학교경영의 제반 영역을 포함, 학교장 선출보직제가 시행될 경우 그 선출과정과 담임 등의 교사

보직 결정과정 등 인사영역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인식 정도는 전체로는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36% 정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비율이 34%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정도로 학부모 대부분이 학부모들의 학교 인사영역 참여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49%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10% 정도였고 40% 정도가 되어 유보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의 45%가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선택하였다. 그 외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관련 학교경영 전영역에 대한 영역에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이 행정영역에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보다 6% 이상 높았다.

학교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경영의 선결조건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욕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8%로 제일 많았고, 학교경영 참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4% 정도로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학교경영활동에 참여한다면 어느 활동 영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42.9%가 급식활동 봉사, 교외생활지도, 현장학습 보조 및 독서지도 등 자원봉사를 원한다고 선택하였다.

학부모 개인적으로 학교경영 참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학부모 중 참여 필요시 학교방문이 34%를 선택하였고, , 전화나 서신으로 언제나 26%, 학부모회 같은 공식석상이 25.6%를 선택, 교사의 요청 시를 선택한 12%보다 많았다.

앞으로 학교경영에 참여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협조’와 ‘반드시 협조’를 선택한 비율이 51%에 달하고 ‘참여가 어렵다’는 학부모는 5%여서 과반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2. 결론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들의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수립·집행에의 참여 인식이 매우 저조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적 교육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해주듯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경영 현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긍정적 반응이 그다지 높지 않고,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안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부모들의 국가적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미흡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광역자치제 단위의 교육자치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 과정에 학부모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좀더 실효성 있는 차원에서의 제도와 정책을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학교 내의 다양한 경영 활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에 대해 학부모 절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학력 및 생활수준과 지역의 차이에 따라 그 인식에 격차가 있었다. 학교경영 참여 실태 역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 경험이

있고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지역차가 있었고 학력 및 직업별로도 격차가 있어 학교경영 참여 인식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활동 영역 중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에는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역 및 학교별 특성 및 학부모들의 개인별 실정을 감안한 학부모 사전 교육제도 등 다양한 학부모 학교경영 참여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홍보방안 수립 및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종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의 수립 및 집행 등 각 종 영역의 학교경영 활동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 더 권한이 확대된 범위에서 참여를 원하나 교사의 전문성 등 고유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학교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지원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학교경영에 긍정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학부모의 형편을 감안한 다양한 시간대의 모임 운영 또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네트워크 조직 등 학교경영에 접근성이 용이한 통로를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발달에 따른 학부모들의 의식변화와 학력 및 경제력의 증가, 여가 시간의 증가 등은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제반 활동영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참여 의지 증대와 함께 실제 활동의 영역과 시간 등 실질적 참여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학교경영 제반 영역에의 참여 확대와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고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며 참여에 따른 공정성에 입각한 객관적·실질적 보상이 뒤 따를 때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통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경영 참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육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고, 그 수립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경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길수·김종철·김영식, 학교행정(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73)
-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3(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1986)
-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홍보자료집(1) (1995)
-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부산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권미경, 학부모 운동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미영, 학교경영 자율성 신장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보고 제12권 제1호(1994)
- 김봉수, 학교와 학급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82)
- 김세기, 학교경영론 (서울, 배영사, 1990)
-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연구회 제3권 제3호(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1995)
- 김신일 외, 시민의 교육학 (서울 : 한길사, 1995)
-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서울 : 성원사, 1998)
- 김운태, 교육행정 교육신론(서울 : 백영사, 1994)
- 김영돈,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서울 : 익문사, 1971)
- 김정한 외,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서울 : 형설출판사, 2004)
- 김종철, 학교학급경영론 (서울 :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7)
- 김종철·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4)
- 김창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91)
- 나병현, 영국의 지방교육자치 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국제문제분석 제24호, 국제입법조사분석실(1995)

- 남궁용권, 신교육학총론(서울 : 양서원, 1995)
-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서울 : 교육과학사, 2005)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문낙진, 교장의 직무분류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논문집, 1979)
- 박인학, 교육행정과 교육조직 경영의 이론과 실제(서울 : 도서출판 양지, 2002)
- 백현기, 교육행정의 기초(서울 : 백영사, 1977)
- 서정화, 교육행정제도 개선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0)
- 서정화·김세기·김용숙, 학교경영(서울 : 갑을출판사, 1988)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서울 : 박영사, 1983)
- 여대수, 학교 육성회 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우종해, 현대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82)
- 유주선,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만족의 정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현숙,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4-2(1994)
- 윤정하,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의식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 윤종옥,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방안 탐색(건국대학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동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
학원, 1996)
- 이순형, 학교 경영과 지역사회관계, 교육자치제에 대비한 학교 경영의 방향(교육행정학
연구회 '89 연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1989)
-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30권 2호, 1992)

- 이혜숙,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 방식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임경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부산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임규진 · 임연규, 교육행정학의 이해(서울 : 도서출판 보성, 2003)
- 임연기,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논리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제20권 제 2호(2002)
- 장길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구(서울 : 한성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용하, 학부모의 교육 참여 특성과 만족도 분석 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찬영, 교육행정의 자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6)
- 정충혁,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태범, 학교경영론(서울 : 교육과학사, 2000)
- 조선일보, 학교육성회 출범 1개월 그 운영의 묘는 실현 되었나 (1970. 4. 25)
- 조성일 ·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서울 : 양서원, 1996)
- 조창신, 학교육성회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희선, 학교 · 학급경영(서울 : 형설출판사, 1992)
-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교육현안 10대 과제 (서울 :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1995)
- 허종렬, 학교민주화와 학교참가권 : 독일을 중심으로, 새교육 통권 479호(1994)
- D. Waldo, "What is Public Administrations", M. Jay et al., ed., Classics of Public Administrations(Illinois : Moore Publishing Company, Inc., 1978)
- Eric Hoyle, The Process of Management(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1)
- J. M. Lipham and J. A. Hoeh Jr., The Principalship(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4)

- Paul Hersy and E. Blachard, Managema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Utilizing Human Resource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
- R. F. Campbell, J. E. Corvally, and J. A. Ramseyer, Introduc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oston : Allyn & Bacon, 1966)
- Ward G. Reeder, The Fundamentals of Sdhool Administration(New York : Macmillan, 194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본 조사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학교경영에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부모님의 경험이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결과 산출 후 파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교육대학원
교 육 행 정 전 공
조 중 인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학부모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항목 한 곳에만 ____위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항목도 **빠짐없이**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 령 : ____① 30대 ____② 40대 ____③ 50대 이상

2. 거주지역 : ____① 강북구 ____② 강남구 ____③ 강서구 ____④ 노원구

____⑤ 도봉구 ____⑥ 동대문구 ____⑦ 동작구 ____⑧ 서초구
____⑨ 서대문구 ____⑪ 성동구 ____⑫ 성북구 ____⑬ 은평구
____⑭ 중구 ____⑮ 중랑구

3. 학 력 : ____①고졸 ____② 전문대졸 ____③ 대졸, 대학원 이상

4. 직업(직업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업)

- ____① 회사원 ____② 생산직 ____③ 판매·서비스업
____④ 전문직 ____⑤ 공무원 ____⑥ 일용직
____⑦ 기타 ()

□ 다음의 질문들은 학교경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입니다. 빠짐없이 해당되는 항목의 ()안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 ____① 매우 그렇다
____② 그렇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그렇지 않다
____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단위의 교육정책을 실제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① 매우 그렇다
____② 그렇다
____③ 보통이다
____④ 그렇지 않다
____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현 교육자치제 하에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다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 ___ ① 국가적 교육체제의 문제
- ___ ② 학교운영의 비민주성
- ___ ③ 학교교육환경의 미비
- ___ ④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 ___ ⑤ 기타 ()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학부모님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현재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경영(교육 및 행정영역)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현재 자녀가 다니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경영 참여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___ ② 그렇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그렇지 않다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다음의 질문들은 학부모님들의 학교경영 참여에 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7.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반드시 필요하다	→ 8번 문항으로
___ ② 약간 필요하다	
___ ③ 별로 필요 없다	→ 9번 문항으로
___ ④ 전혀 필요 없다	

※ 위의 7번에서 ①,②에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8. 위의 7번 문항에서 ①,②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는 학부모로서 권리이며 의무이다
 ___ ②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협력이 자녀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___ ③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___ ④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
 ___ ⑤ 기타()

※ 위의 7번에서 ③,④에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9. 위의 7번 문항에서 ③, ④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학교교육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___ ② 학교교육의 참여가 교사의 교육활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___ ③ 관심이 없어서이다
- ___ ④ 학부모 참여의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다
- ___ ⑤ 기타()

10.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경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학부모님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가 학부모님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자녀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 ___ ②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학교에 봉사하려고
- ___ ③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 ___ ④ 학교에서 요구하므로
- ___ ⑤ 기타 ()

14. 학부모님의 학교 경영 참여에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시간이 부족해서
- ___ ② 자녀의 성적 부진
- ___ ③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방법을 몰라서
- ___ ④ 경제적 부담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 ___ ⑤ 기타 ()

15.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___ ① 있다
- ___ ② 없다

※ 위의 15번에서 ①에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만 답해 주십시오.

16. 위 15번 문항에서 ①(있다)에 답하신 경우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 ___ ① 학습지도(가정학습지도, 학습평가, 특별활동지도, 학습지도 보조교사)
- ___ ② 자원봉사(급식활동 봉사, 교외생활지도, 현장학습보조, 독서지도)
- ___ ③ 학교행사참관(교내 각종 행사 참관)
- ___ ④ 학교경영의 자문 및 정책결정(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추방위원회)
- ___ ⑤ 학교지원(환경정리, 학생복지시설지원, 장학금 지원, 학습자료지원, 학교후원회)
- ___ ⑥ 성인학습(평생교육 강의, 평생교육 수강)

☐ 다음의 질문들은 학교경영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17.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현행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의 수립 및 시행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외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의 수립단계에 학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교육활동 및 학습지도,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및 행·재정 등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학교경영 영역 외, 학교장선출보직제가 시행될 경우 그 선출과정 및 담임 등의 교사보직 결정과정 등 인사 영역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 ___ ② 그렇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경우 다음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___ ① 학교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과 교육행정 관련 전 영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___ ② 교수-학습활동에 관계되는 관련 영역은 현행대로 심의권만을 부여하고 교육행정 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의결권까지 부여되어야 한다
- ___ ③ 현행 권한을 유지하되 학부모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 ___ ④ 현행 제도 아래 학교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여야 한다

22. 학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경영의 선결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의 개선
- ___ ② 학교장의 투명한 학교 경영
- ___ ③ 교사의 열의와 헌신
- ___ ④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 욕구
- ___ ⑤ 참여에 대한 수용과 보상
- ___ ⑥ 기타 ()

23. 앞으로 학교경영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어느 영역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___ ① 학습지도(가정학습지도, 학습평가, 특별활동지도, 학습지도 보조교사)
- ___ ② 자원봉사(급식활동 봉사, 교외생활지도, 현장학습보조, 독서지도)
- ___ ③ 학교행사참관(교내 각종 행사 참관)
- ___ ④ 학교경영의 자문 및 정책결정(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추방위원회)
- ___ ⑤ 학교지원(환경정리, 학생복지시설지원, 장학금 지원, 학습자료지원, 학교후원회)
- ___ ⑥ 성인학습(평생교육 강의, 평생교육 수강)

24. 학부모님의 개인적 학교 경영 참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참여 필요 시 학부모의 학교 방문
- ___ ② 교사의 요청 시
- ___ ③ 전화나 서신으로 언제나
- ___ ④ 학부모회의 같은 공식석상에서
- ___ ⑤ 기타 ()

25. 앞으로 학교경영에 참여 요구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참여 · 협조하기 어렵다
- ___ ② 사정에 따라 참여 한다
- ___ ③ 되도록 협조 한다
- ___ ④ 반드시 협조 · 지원 한다
- ___ ⑤ 기타 ()

ABSTRACT

A Study on Parents' Percept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Cho, Jong I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Advised Prof. Kim, Kyung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parents for their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as well as for their actual participation and thereby, explore some desirable way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school administration and thereupon, suggest the effective ways to induce them to participate in school administration for development of school education.

For this purpose, relevant literature and preceding stud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reup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ents with their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e metropolitan city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gether with its

suggestions;

First, it was found that parents were much less aware of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educational autonomy, design of national or provincial systems and policies, participation in their implementations, etc. However, parents were highly aware of the problems involving the national educational system.

As it was, parents were less responsive to the management of their children's schools, perceiving that they were not effectively guid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All in all, parents were not positive towards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In order to enhance parents' poor perception of national education systems and policies,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nation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autonomy and encourage parents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 process of their improvement. In addition, it is also required to arrange diverse alternatives for effective applications of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to a variety of activities for school administration.

Second, although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parents admitted the ne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school administration, their perception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academic backgrounds, living standards and districts. On the other hand, many parents had ever participated in school administration or were actually participating in it, but the level of

participation differed among districts or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s and jobs. In short, perception almost agreed to actions. In addition, assuming that parents are much interested in the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arrange diverse measures for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among districts, schools and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further, implement the measures effectively with efficient facility and P.R plans.

Third, since parents want to participate more widely in such areas of school administration as educational planning, curriculum design and implementation but they feel that teachers' original authority such as teaching professionalism should be respected,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implement some training programs to help teachers improve their professional school administration capacity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Furthermore, it may well be desirable to encourage parents to be more concerned about school administration by providing them with information about school administration via Internet, meetings at the various time zones convenient to them or an organized community network centered about them or other easily accessible routes.

As the society develops, parents are more and more aware of education due to their higher academic background and financial ability with increasing leisure time. Thus, parents are more awakened of various areas of school administration, being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chool administration, and

therefore, they will request for specific programs or guidelines for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administration. In such circumstances, in order to encourage parents to participate more positively in wider areas of school administration,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systematically, providing for diverse opportunities for their participation, while rewarding them for such participation in a fair and substantial way. Then, they will be mo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school administration only to provide for a ground for our schools to effectively foster the able people required in the 21st century.